

세종

2019년 문집 제33호



인장 Photo by Haejin Park Kim



세종학교 교가

조규홍 작사
박재훈 작곡

1. 대 - 한 의 어 린 이 들 이 - 곳 에 모 여 들 어 우 -
2. 너 - 와 나 손 을 잡 고 하 - 늘 을 지 고 이 어 한 -

리 틀 길 - 러 내 어 문 화 오 천 년 기 리 빛 내 고 오 -
국 울 미 - 국 속 에 알 차 게 길 리 향 기 틀 내 고 오 -

우 리 는 미 슈 간 - 에 자 랑 스 런 세 - 종 의 얼 빛

내 리 세 종 학 교 빛 - 내 리 세 종 학 교

세종학교 교육목적

재미 한국인의 후예들로 하여금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전통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접하도록 교육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종의 얼을 배우고 받아들여 전통 있는 민족의 긍지를 갖추도록 한다.

세종학교 각종행사

1. **학생 특별활동:** 친구 클럽, K-rise 클럽, 세종뉴스레터클럽을 통해 학생들은 취미에 맞는 클럽을 찾아 참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모금파티:** 1978년 4월 비영리 단체로 등록, 모든 후원회비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마다 모금 파티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3. **강연 및 연수회:** 매 학기 교내 교사 연수회,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와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등 대외적인 강연과 연수회를 실시하고, 참가하여 보다 진보된 교육의 풍토를 세종학교 교사들의 수업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다.
4. **각종행사:** 한국어 이야기 대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 글짓기 대회, 역사 문화 골든벨 퀴즈 등을 개최하여 미시간 주최의 여러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다양한 대회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5. **태극마을 위문 공연:** 1990년부터 새해 1월이면 새해 맞이 잔치를 하여 연장자들이 사시는 아파트인 태극마을을 방문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위문 공연도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6. **세종문집:** 1986년부터 발간되어 해마다 학생 작품 등이 실려 나오고 15, 20, 25, 30주년 특집호가 발간되었다.
7. **세종예술제:** 1972년 6월부터 한 학년이 끝나는 6월에 학예 발표회식으로 학부모들을 모시고 세종예술제를 열고 있다.
8. **종, 졸업식 및 야유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수료증, 졸업증, 학습보고서, 상장을 수여하며 세종문집을 배부한다. 식후 야유회를 개최하며 학부모님을 비롯 하여 인근의 입양아 가족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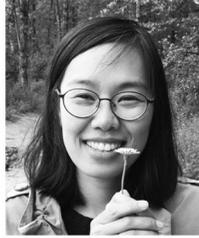
세종학교 교사들



교장 김선미



토끼반 박진희



나비반 현진 Kirby



개나리반 박현우



매화반 이윤경



난초반 한은영



무궁화반 노정환



무궁화반 최희순



장미반 윤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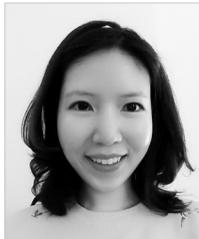
해반 유윤정



솔반 김계현



달반 이순영



달반 박혜인



별반 윤희정



별반 김세정



하늘반 최수나



신입반 엄선규



색동반 오승용



종달새반 이재선



음악반 윤영아



무용 미숙 Drews



미술 김혜진



사물놀이 Torey Powers



재무 양승렬



태권도 보조 정상운

목 차

인사말	7
토끼반	12
나비반	22
개나리반	28
매화반	35
난초반	43
무궁화반	49
장미반	53
해 반	57
솔 반	62
달 반	66
별 반	72
하늘반	79
신입반	86
색동반	89
종달새반	92
음악	94
무용	95
사물놀이	96
태권도	97
미술	98
세종학생들의 특별활동	100
세종행사들	104

발행인: 김선미

편집인: 김혜진, 박현우,

한수경, 한은영

발행일: 2019년 5월

발행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사랑스러운 친구들~

입학을 축하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꽃 피워낸 세종학교



교장 김선미

지난 2017년과 2018년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세종학교는 정말로 추운 겨울을 보내느라 힘겨웠습니다. 올해의 매운 겨울 보다는 훨씬 보통의 미시간 날씨였음에도 세종학교가 느끼는 그 추위는 냉혹한 그 여느 겨울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추웠던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학교 건물로 이사 오면서, 학생들도 새롭고 학부모님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두가 애를 쓴 힘든 한 해였지만 특히 그 변화를 가장 일선에서 겪어내시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충격을 덜게 하느라 애써온 훌륭한 세종학교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올해 2018-2019 학년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종학교는 세종 문집 33호를 내게 됩니다.

미국 어디에서도 한국학교로 세워진지 33년이 넘는 학교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 1972년 개교한 이래 문집을 낸 역사만도 33년인 세종학교는 추운 겨울 눈 속에서 봄을 알리는 전령사와 같은 예쁜 꽃을 피워내는 매화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 속 꽃망울을 준비해오고 있다가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강렬하진 않지만 우아한 자태를 봄과 함께 가져다줄 뿐 아니라 열매인 매실은 가정의 건강을 도와주는 약재로 쓰이기도 할 뿐 아니라 뿌리, 줄기 등등 모든 부분이 약재로 쓰이는 꽃나무입니다.

바로 우리 세종학교의 학생들이 매화나무처럼 자라길 바라는 한 마음으로 학부모님들의 정성 어린 물 주기와 영양분 공급해주기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치를 다듬어주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곧 세워주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세종학교 학생들의 향기와 쓰임을 더욱 크게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종학교 학생들의 일 년의 수고로 내놓는 세종 문집 33호는 단순히 일 년의 결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와 그 자태로 우뚝 서있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움입니다.

미래를 이끌 세종 인재를 키우는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칭찬으로 우리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빛나는 세종학교 학생들의 올해의 결산 세종 문집 3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랑합니다!!!

세종문집 33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사장 김창휘

2018-19 학년도를 마치면서 한 해의 결산물인 세종 문집 33호를 내놓은 세종학교 학생들 축하합니다. 또한 오늘의 세종학교 학생들을 키워주시느라 애를 쓰시는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변화된 학교 환경에서 무던히도 애를 쓰며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애를 써오신 김선미 교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33호를 낸 세종 문집은 사실 분량으로만 봐도 적지 않은 분량이고 내용으로만 봐도 모든 학생들의 작품이 실려있고 학교생활의 사진 등이 담겨 있는 보물 같은 자료입니다.

그냥 한 권의 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소중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런 책을 내기까지 선생님들께서 흘리셔야 했을 그 많은 수고의 땀방울로 더욱더 소중해지는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자녀를 보내주셔서 세종학교가 더욱 풍성한 보물선이 되게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과 수고와 헌신으로 세종학교에서의 모든 순간을 오롯이 학생들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김선미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세종 문집 33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세종학교의 학생들을 더욱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세종 문집 33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세종문집'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
원장 박준성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알알이 숨 쉬는 '세종문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힘을 모아 만드신 세종문집은 모든 학생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특히 이 속에는 여러분의 꾸밈없는 생각과 순수한 마음, 재치와 슬기로우미 것들이 있어 더욱 소중하고 자랑스러우며, 여러분이 세종학교에서 지난 1년간 체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또한 내가 갖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이어받은 자랑스런 후손들입니다. 특히 세종대 왕께서 만드신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동시에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인 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능한 세종인 이면서 국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우리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당당히 세계 속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글 읽는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어린이 여러분의 꿈이 자라나서 장차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끝으로 "세종문집" 발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애써 주신 김선미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의 한글학교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종학교가 많은 분들의 애정으로 더욱 발전하는 한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 원장 박준성

2019년 3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함



재미한인자동차산업인협회(KPAI)
회장 이승훈

수년 전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할 무렵, 운이 좋게 큰 상을 받게 되어 회사의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회사의 높은 분이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밀도 끝도 없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노래의 가사도 모르고 K-POP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었던 터라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지식만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그 노래와 K-POP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테고 좀 더 자연스러운 저녁식사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Korean-American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라는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Specialty”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 그리고 미래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별함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Korean-American의 특별함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으며 이것들을 배우는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큰 성원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세종 문집은 이들의 특별함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익숙지 않은 한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학생들의 노력과 가정에서 한글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의 다방면에 걸친 지원, 그리고 세종학교에서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가르치고 아이들의 표현 방법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세 박자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 세종 문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집을 만드는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해준 세종학교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Broken language는 Globalization의 가장 대표적인 trend 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은 이곳에서 “Broken English”를 사용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Broken Korean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roken Korean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 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젊은 Korean-American과 Broken Korean으로 대화해 볼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33호 세종 문집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벌써부터 세종 문집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세종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학부모회장
강희정, 이신숙

작년 여름에 교장선생님의 애타는 모습에 제인 어머니와 함께 학부모회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막상 개학을 하고 보니 새로운 환경에서 건물만이 아닌 시스템이 많이 달라진 상황을 잘 헤쳐나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시작을 하고 보니 쉽지 않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로 잘 뭉쳐지는지 정말 매주가 놀라움에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안에 갖고 계셨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세종학교를 지켜나가려는 마음이 모여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간식 봉사료, 바자회의 큰 도움으로 우리 세종은 더욱더 성장하게 된 것을 느낍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 학부모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아이들이 오늘의 세종학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로 표현이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면서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함께라서 할 수 있는 크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꿈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전통의 명문 세종학교가 되길 기원합니다.



토끼반

교사 박진희

매년 문집 글을 올리는 5월이 되면 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새삼 깨닫게 되네요. 엄마, 아빠 손을 놓고 낯선 교실에 들어와 낯선 선생님과 첫 시간을 보내던 우리 토끼 반 친구들의 긴장 가득했던 눈빛들이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올해 토끼 반 친구들은 유난히 잘 웃고 아주 씩씩하고 밥도 많이 먹으며 목소리도 우렁차서 수업 시간이 정말 신나고 즐거웠어요.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어느새 일 년이란 시간을 우리 친구들과의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완전히 익히기에는 많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 배움의 시간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즐거운 놀이처럼 간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놀이가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커나가길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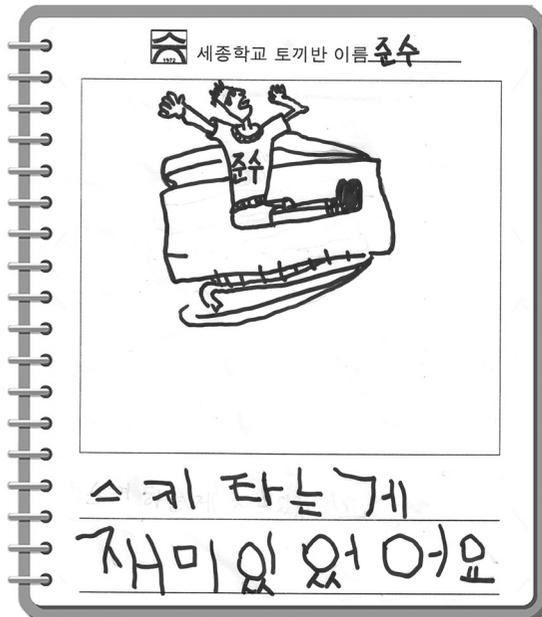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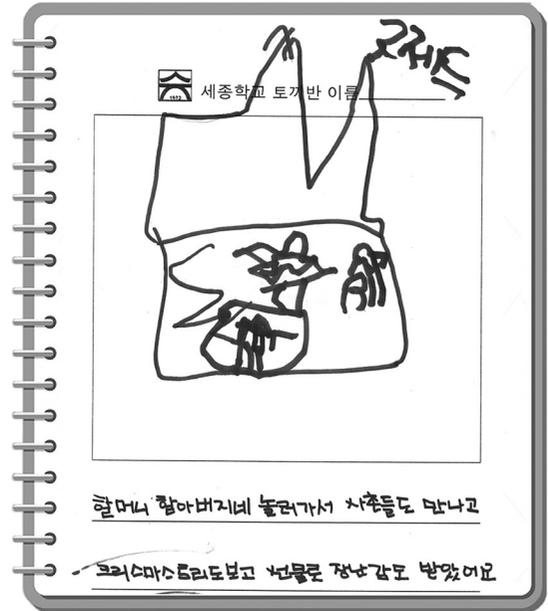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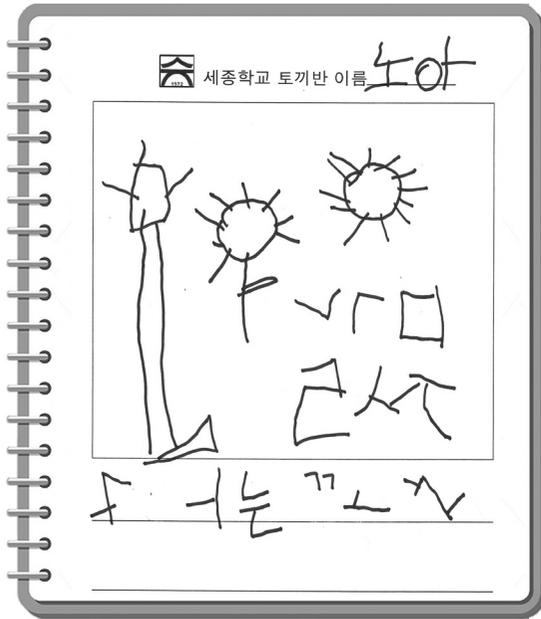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함께해주시는 할아버님과 할머니님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울러 한국을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손을 이끌어 한글학교를 찾아와주신 그 마음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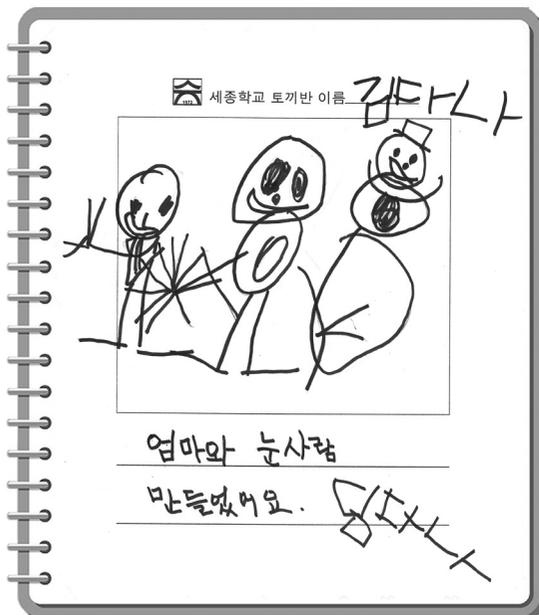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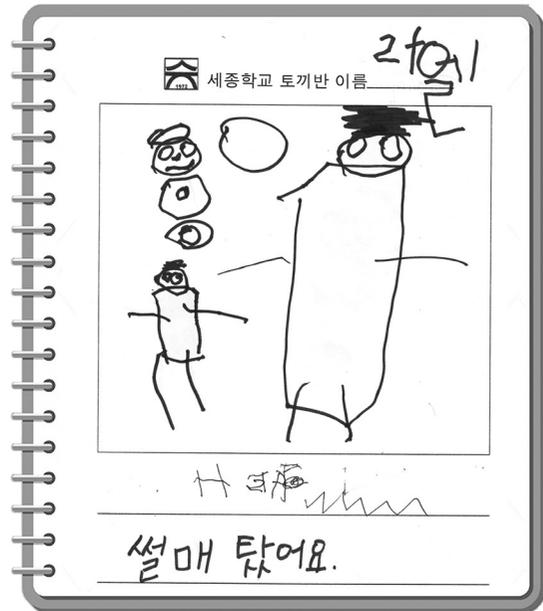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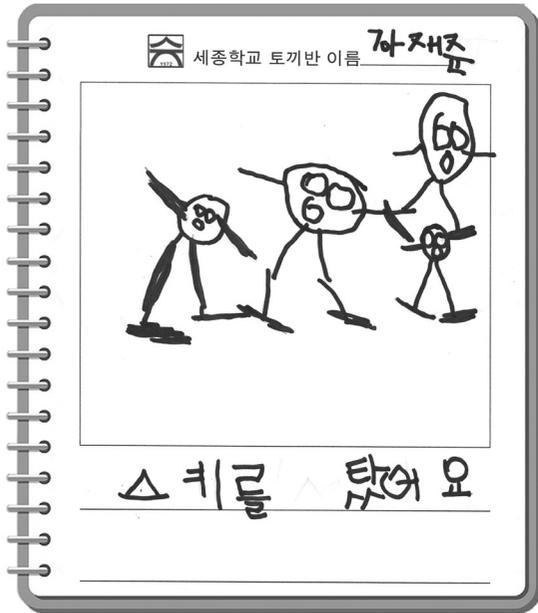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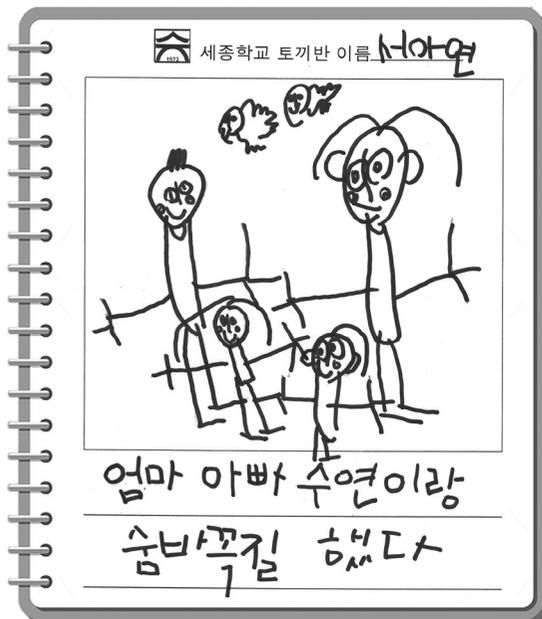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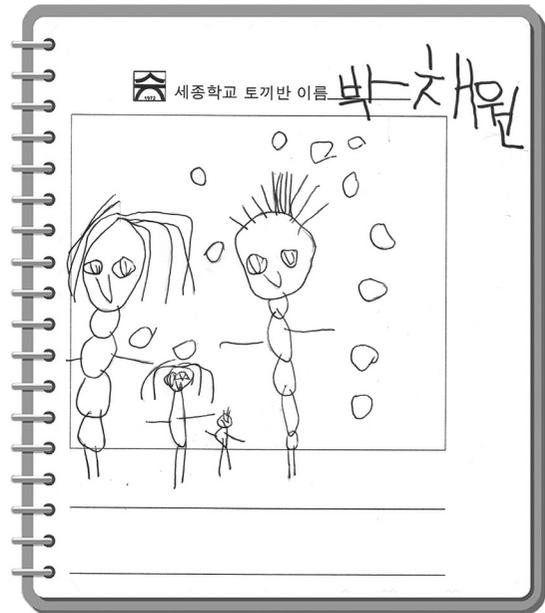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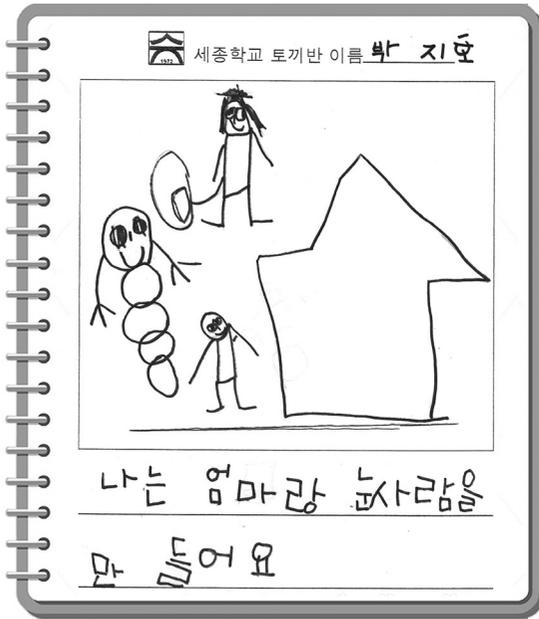
강재준, 박지호, 한이삭, 오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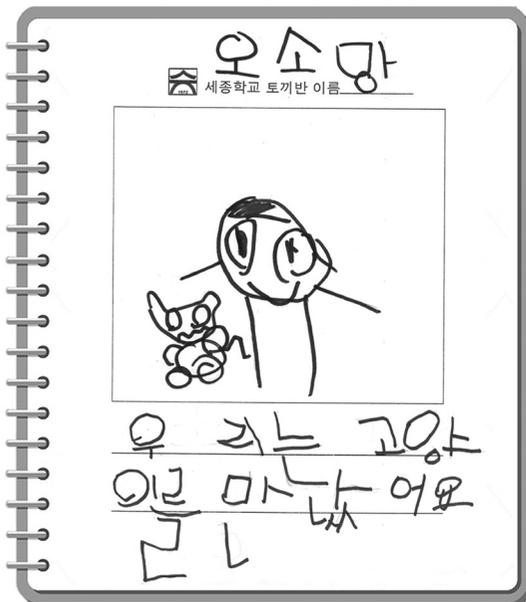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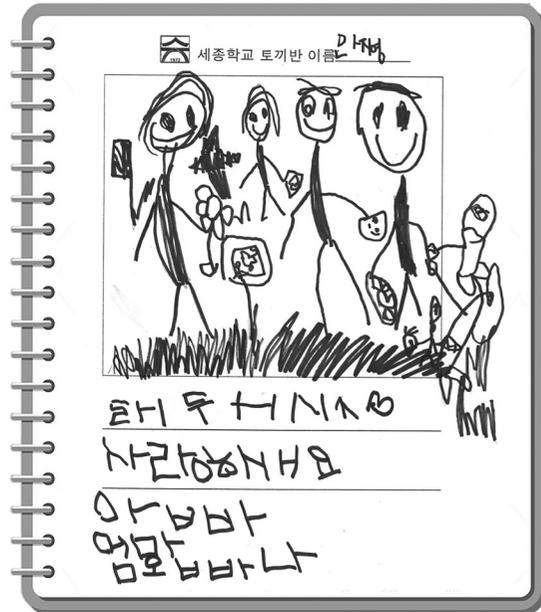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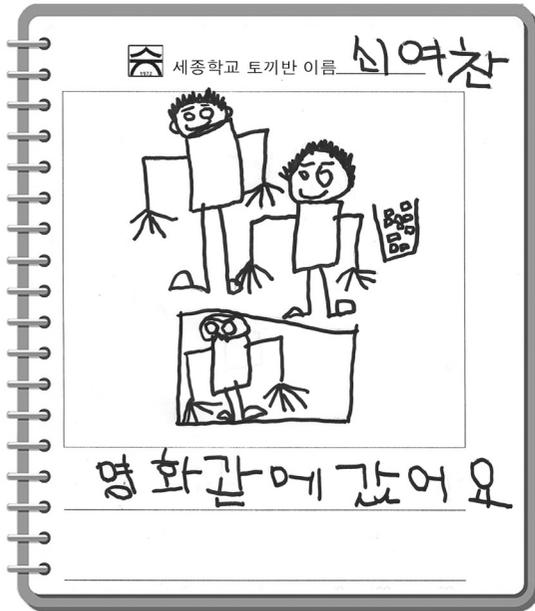
노아 Mutale, 준수 Kirby, 이다은, 서아연, 정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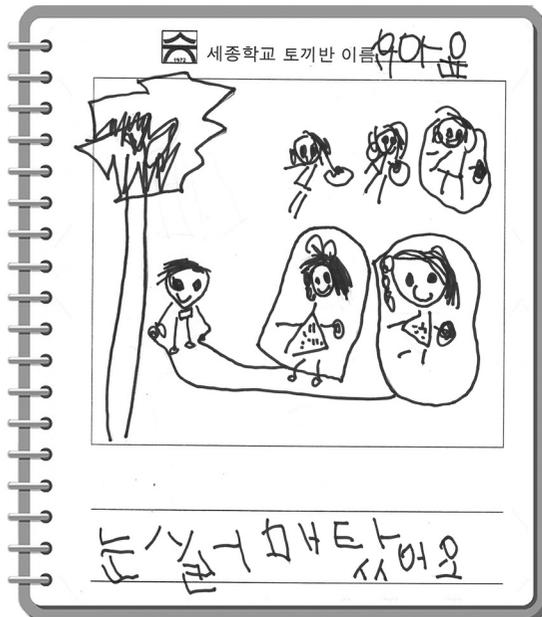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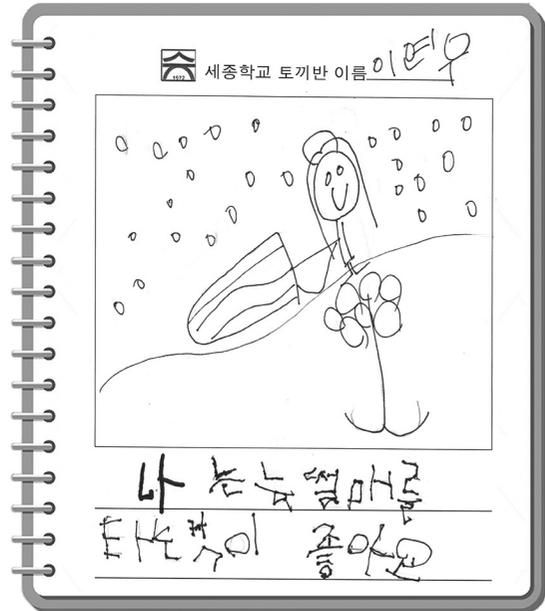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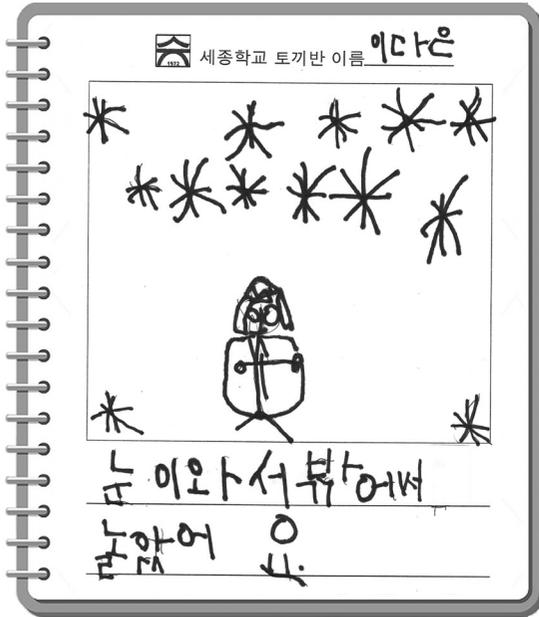
박채원, 김다나, 유아윤, 이연우, 한유주, 최이나, (제드 Vermeer, 권라엘, 신여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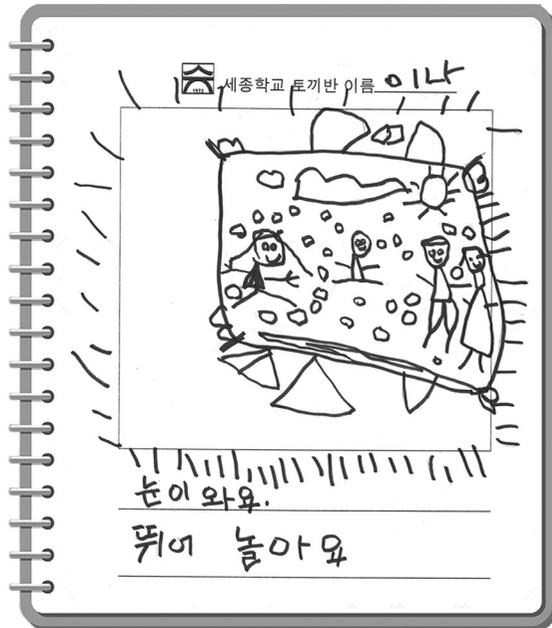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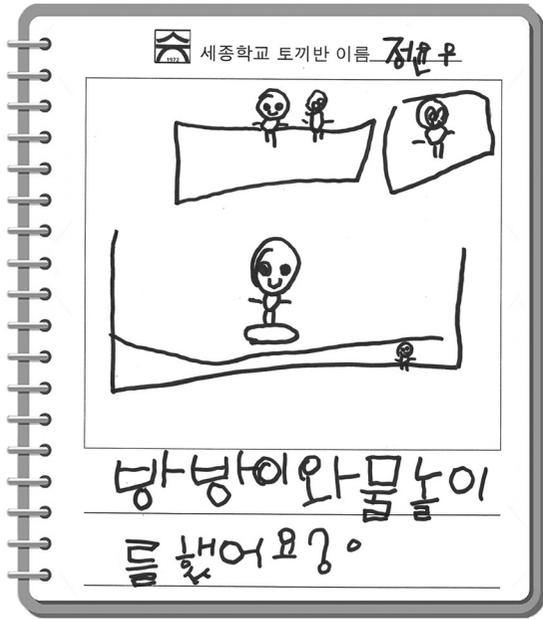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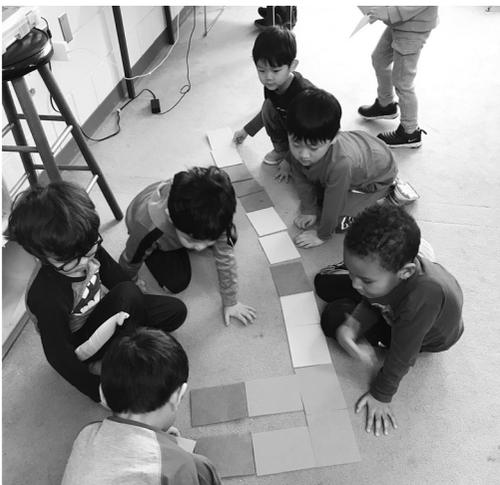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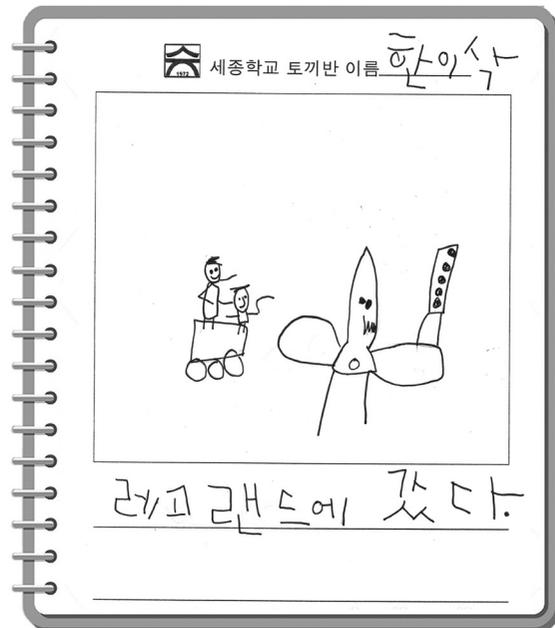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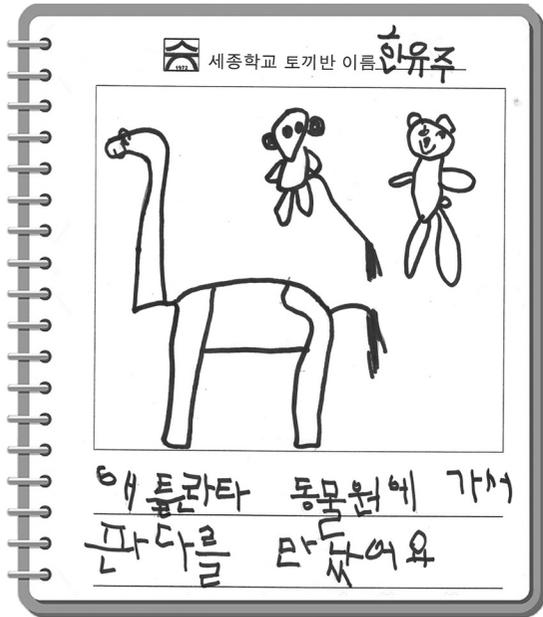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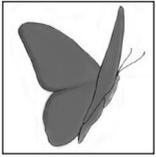












나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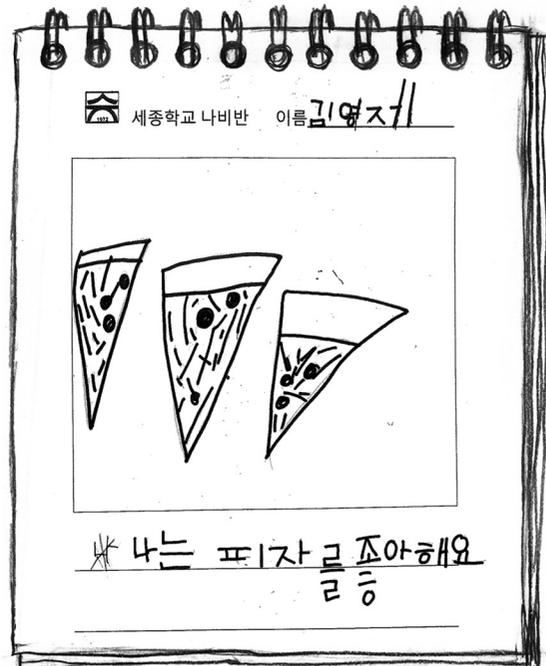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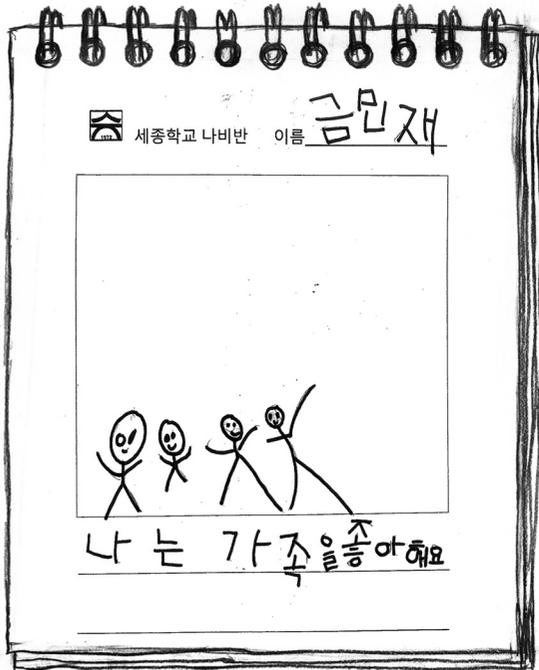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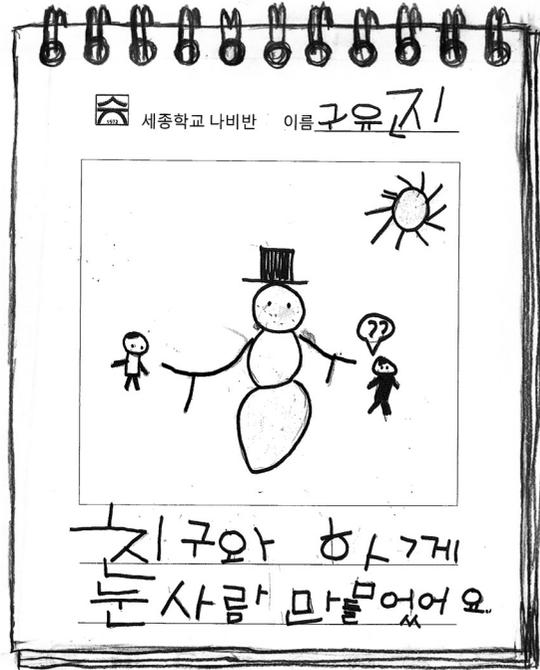
교사 현진 kir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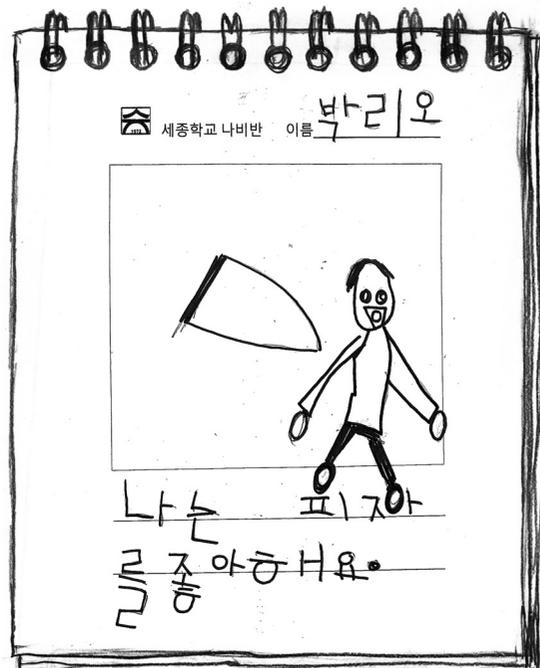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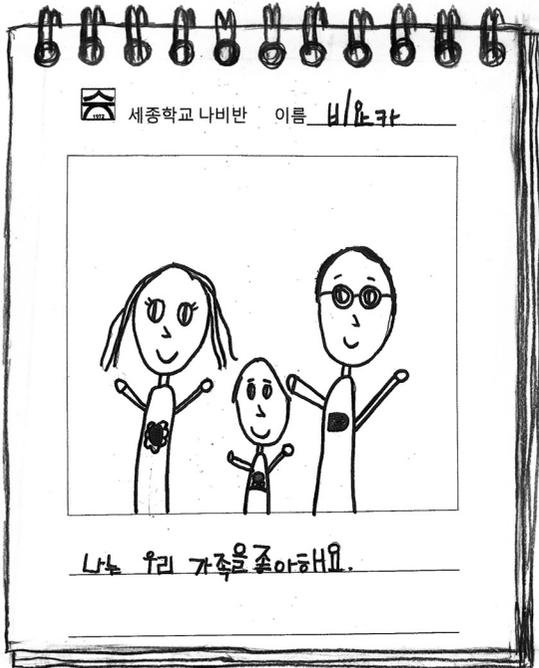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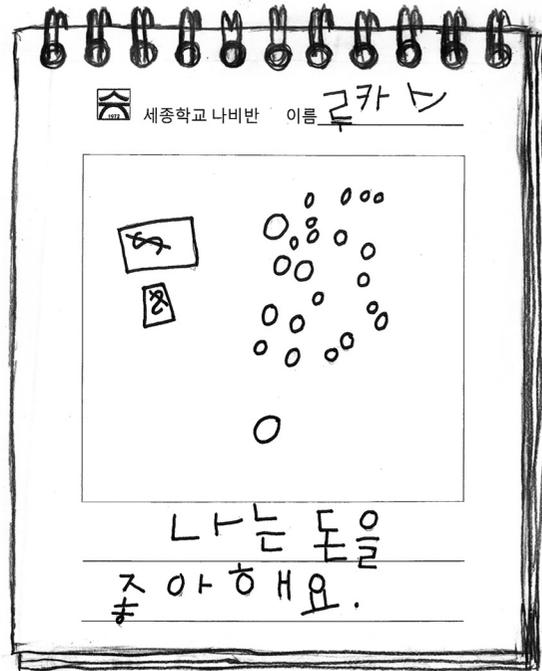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나비반과 함께한 1년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나비반 친구들 모두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후에도 세종학교에서의 시간을 예쁜 기억으로 간직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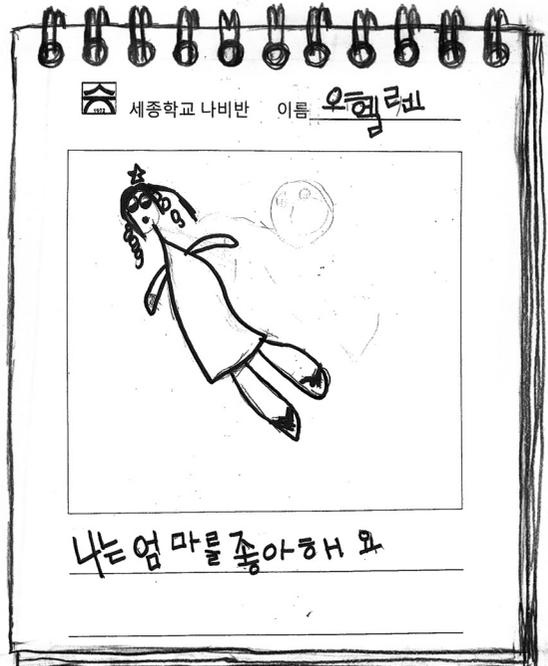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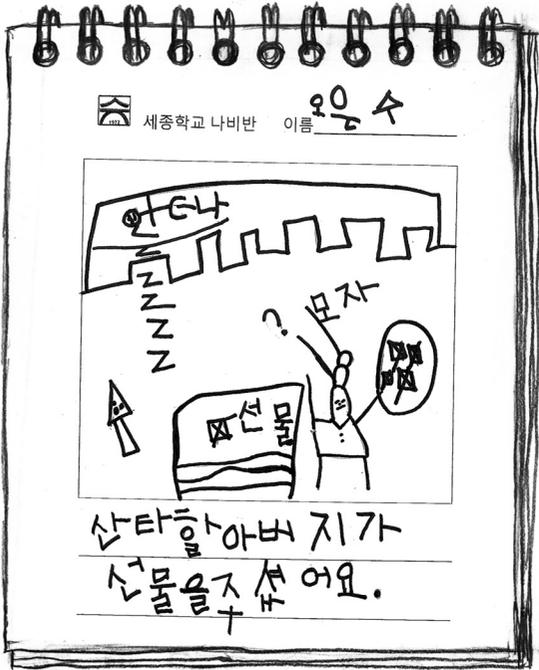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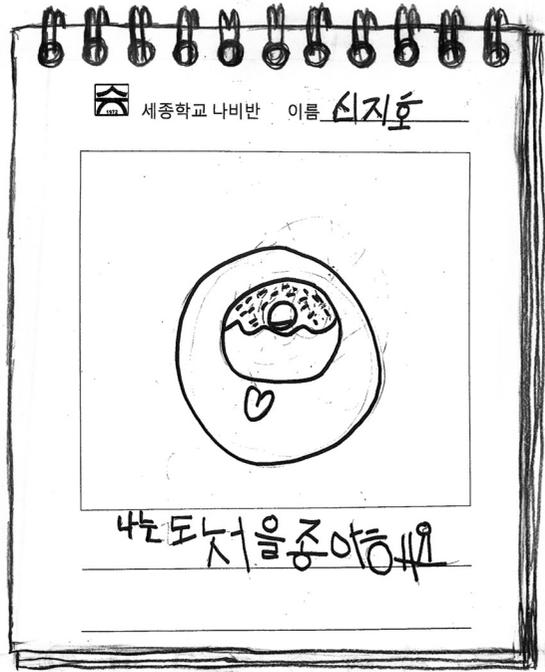
매주 언제나 수고해주시는 학부모님들, 열심히 봉사하는 보조교사선생님들, 그리고 언제나 반짝이는 눈망울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나비반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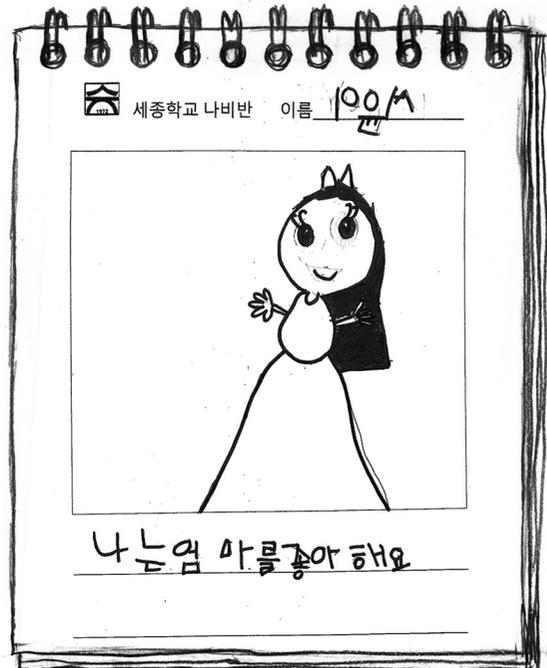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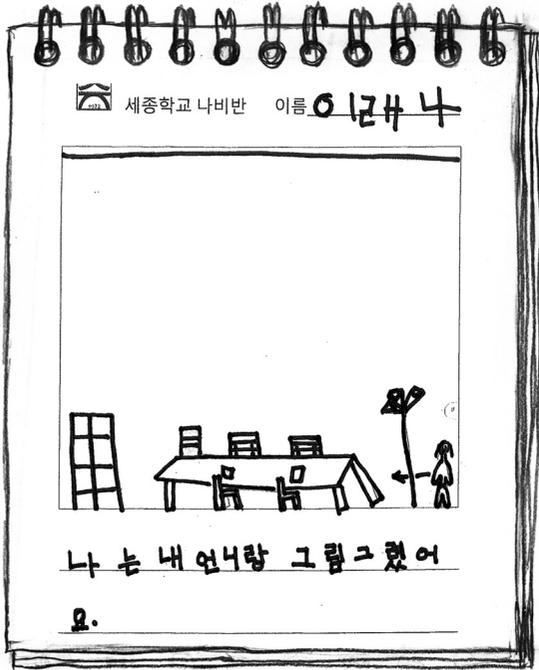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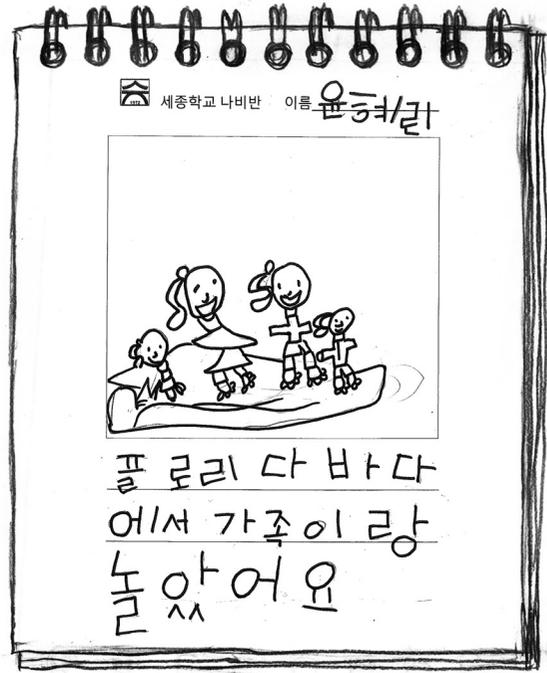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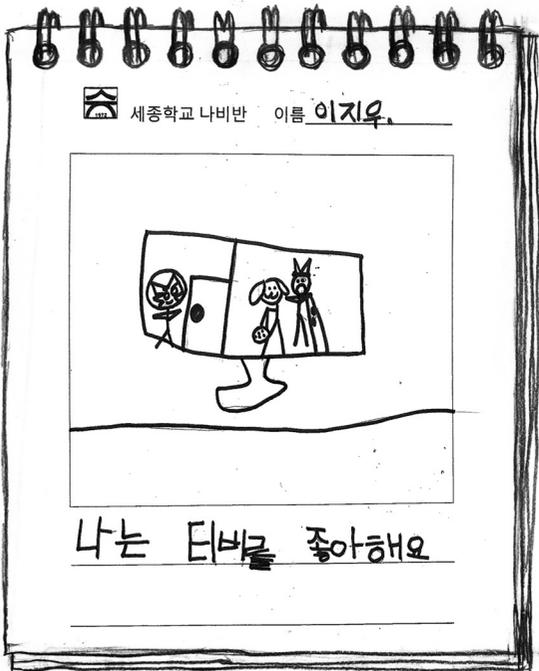
구유진, 금민재, 김영제, 루카스, 박리오, 비안카, 신지호, 오은수, 오헬렌, 윤희린, 이래나, 이윤서, 이지우, 이진, 이채원, 이효경, 전례오, 조은기, 최서진, 클로이, 한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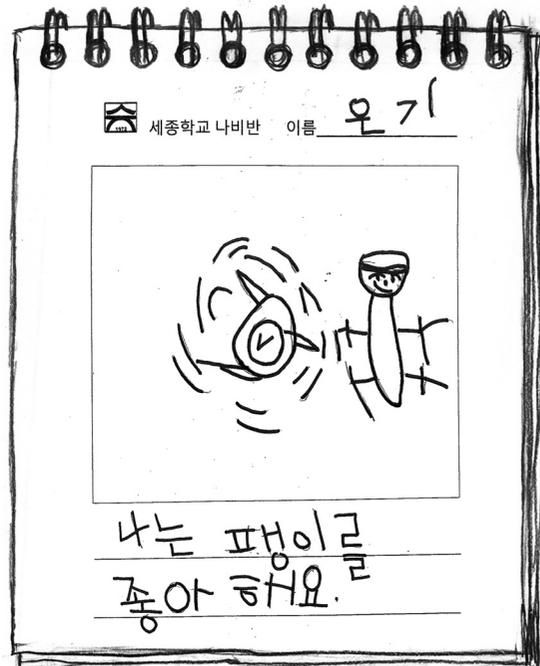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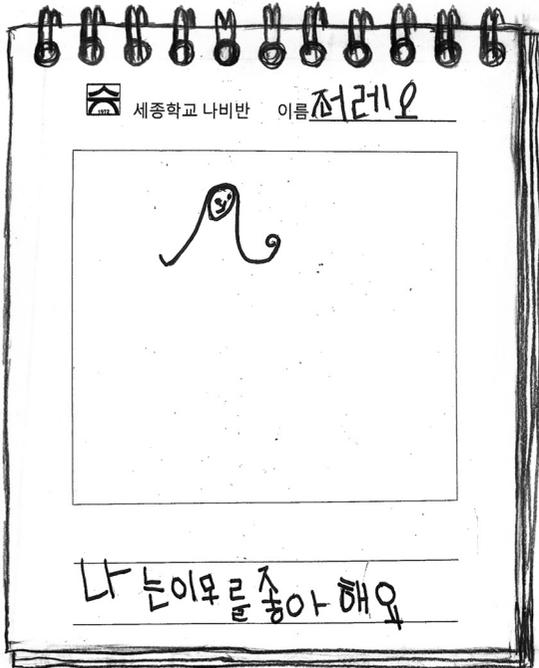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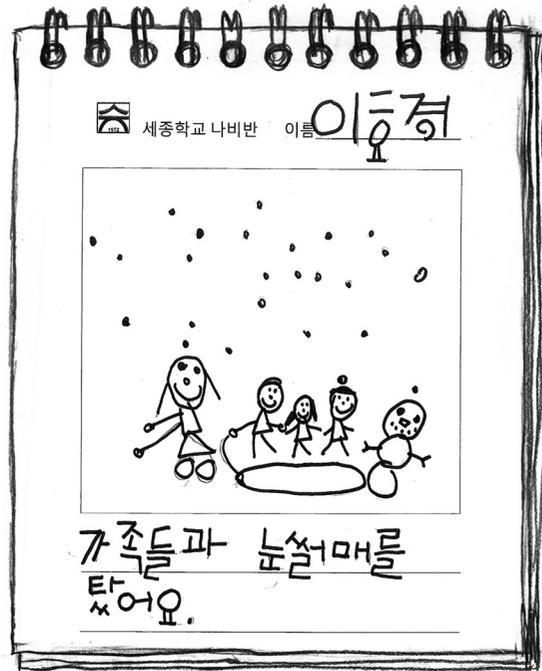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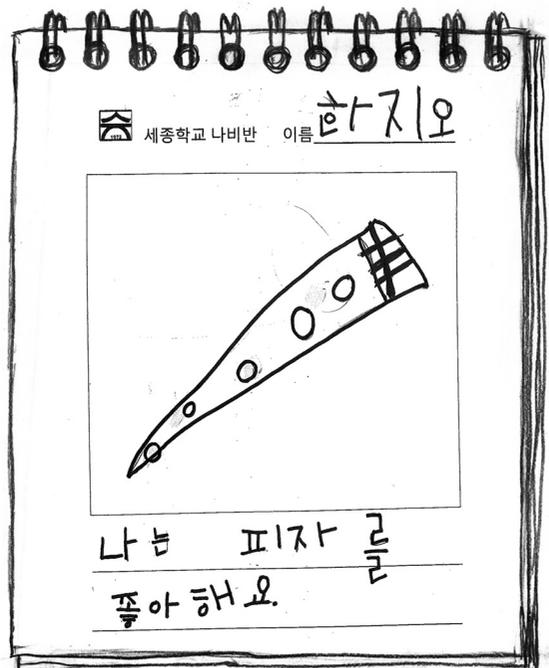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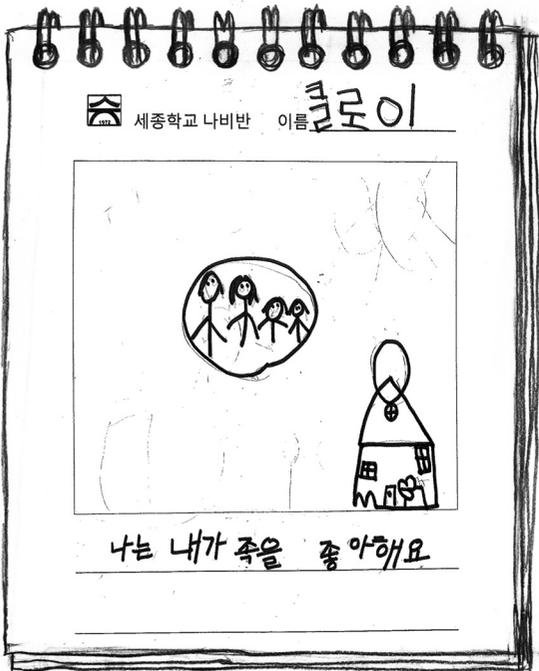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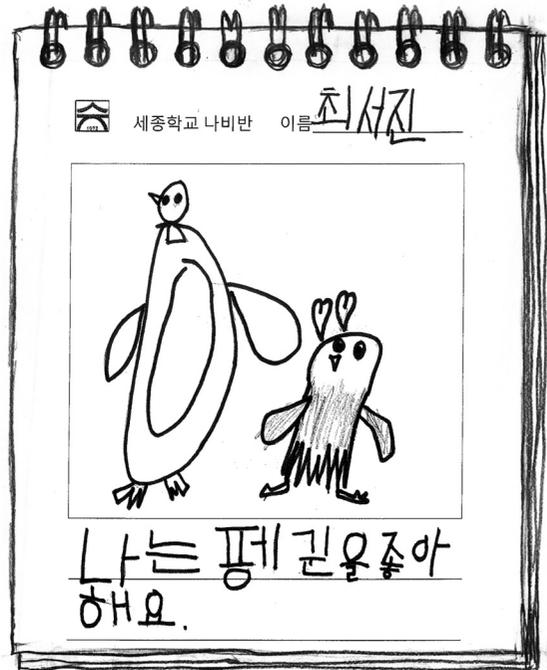














개나리반

교사 박현우

토요일은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날은 아닐 겁니다. 늦잠도 자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와 뛰어놀고 싶을 텐데 엄마, 아빠가 깨우는 소리에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어나 세종학교 가방을 챙겨 등교합니다. 가방 안에는 숙제와 교과서, 필통, 받아쓰기 공책이 있고, 어느 친구 가방에는 부모님 몰래 넣어놓은 인형이나 장난감도 있을 겁니다. 세종학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0시가 되면 개나리반 친구들은 음악 수업을 합니다.

예쁜 음악 선생님을 따라 동요도 부르고, 율동도 합니다. 2교시에 여자친구들은 무용 수업에 들어가 소고춤을 배우고 남자친구들은 태권도 수업에 들어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특별활동 시간 후에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기다립니다. 간. 식. 시. 간!

맛있는 간식도 먹었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은데 자꾸 선생님은 한글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겨우 앉아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까 먹은 간식 때문인지 하품이 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발표도 하고 배운 글자를 읽어보기도 하고 글씨를 써보기도 하면서 졸음을 이겨냅니다. 집에 갈 시간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하자고 하고 또 선생님은 숙제를 주고 열심히 해오라며 잔소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 같이 "안녕히 계세요"라고 끝인사까지 해야 집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반짝반짝 개나리반 친구들의 토요일 오전, 세종학교에서의 일과입니다. 예쁜 주아, 혜나, 윤서, 소현이, 라엘이, 한예린, 최예린, 윤하, 연희 그리고 멋진 태호, 준우, 유진이, 이준이, 하준이, 동주, 유노, 민준이, 지훈이와 2학기에는 함께하지 못한 채이, 린이, 재익이까지... 1년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개나리반 최고! 파이팅!



박윤서, 서유노, 이윤하, 커비준우, 이연희, 최예린, 이민준, 정태호, 김유진
서동주, 김주아, 한예린, 김이준, 안소현, 김혜나, 이라엘, 손하준, 양지훈

개나리반 이름: 기오지

나 큰면농부가 되고싶어요.
 동물들 먹어도 되고, 맛있는 닭갈도
 매일 먹을 수있어요. 소젖도
 짜고, 트랙터도 신나게 탈 거
 예요.



개나리반 이름: 김이준

저는 우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 물고기랑 달나라에 같이 가고 싶어요.
 내가 한국 대표 우주 팀 대장이 되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요. 나워 암스트롱처럼
 우리 나라 국기를 달나라에 꽂을 거예요.

개나리반 이름: 김주아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픈 아이들을 도와
 줘요.





나는 커서 골프 선수가 되고 싶어요. 대회에 나가서 등수를 할거예요. 상도 받고요.



나는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엄마가 음식을 할때 도와주는걸 좋아해요. 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겠어요.



나는 커서 경찰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서원노

Dentist

아빠 ← 나



의자 →

나는 커서 치과 의사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의 발이 안 예
뻐요. 치료해 주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손하준



나는 커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충치가 있는 사람을 고치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안소현

Doctors Pets



나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동물들을 살려 주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양지훈

나는 어른이 되면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땅속 깊은곳 수정과 돌들을 연구하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이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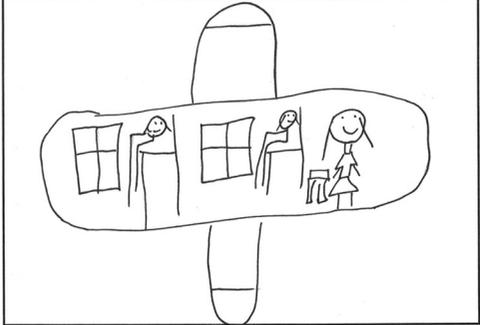
나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이빈준

나는 커서 풋볼 선수가 되고 싶어요. 풋볼 선수가 멋있어요 나는 공을 잘 던져요.



개나리반 이름: 연희



나는 커서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승무원은 예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
어요.



개나리반 이름: 이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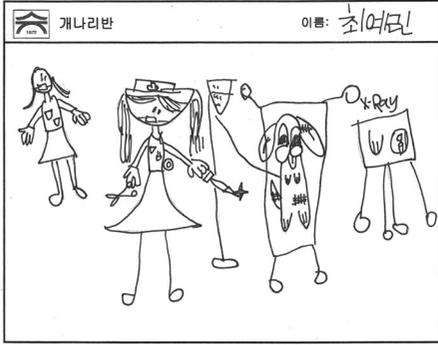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게 좋아요.

개나리반 이름: 정태동



나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림을
그릴때 가장 재밌고 행복해요
어른이 되어서 지금 보다 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최여민

나는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매일 매일 병원에 있을
거예요



개나리반 이름: 커비준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상상력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쓸거예요. 사람들이 내 책을
즐겁게 읽으면 좋겠어요



개나리반 이름: 한예린

저는 커서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 주고 싶어요.





매화반

교사 이윤경

기나긴 미시건의 겨울이 지나고 설레는 봄이 오는 지금 문집을 준비하면서 세종 학교의 첫날을 떠올려 봅니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매화 반 아이들을 맞이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첫날 첫 시간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부끄럽게 자기소개를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씩씩해지고 서로 친해져서 장난도 많이 하지만 그 모습들도 사랑스럽습니다.

학교에 오기 싫다고 힘들다고 투정하는 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아이들을 이해시키며 데려다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노력하는 마음들이 모여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젠가는 모두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가리라 믿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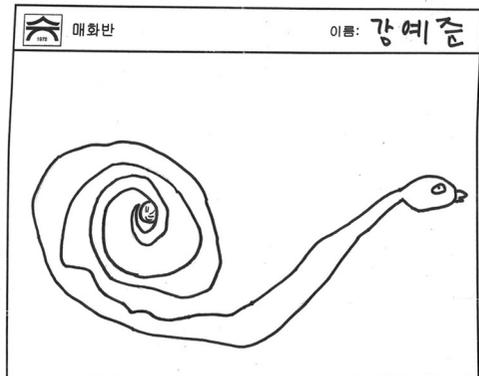
한 해 동안 몸도 마음도 쑥쑥 자란 아이들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밝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길 바라며 항상 마음 써주시는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열심히 학교에 온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강건우, 한이든, 조정표, 이주현, 강예준, 민지홍, 이동기, 이주한, 이두혁, 이준우, 한민혁
금민준, 심유빈, 서여원, 박나연, 전여진, 박다연, 조은유



나는 호랑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자보다 크고
 강한 동물에 때문이에요.



길고 머지고 색깔이 좋아서
 뱀을 좋아해요. 나는 뱀에
 이 발도 좋아해요.
 입안에서 구멍에서 혀가
 나오게 멋져고 신기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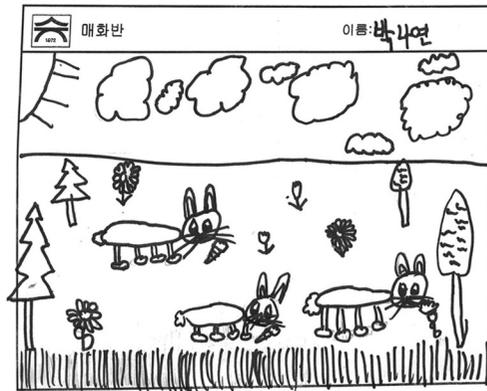


나는 파충류가 좋아요. 왜냐
 하면 종류가 많아요. 뱀, 도아뱀,
 코모도, 왕도아뱀, 카멜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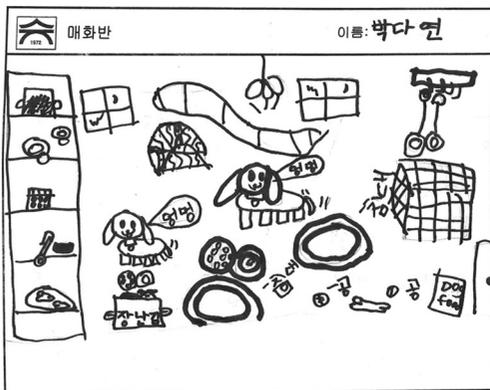




저는 뱀을 좋아해요. 왜 뱀을 좋아
 하나면 뱀은 멋있고 부드
 럽고 가지면 좋을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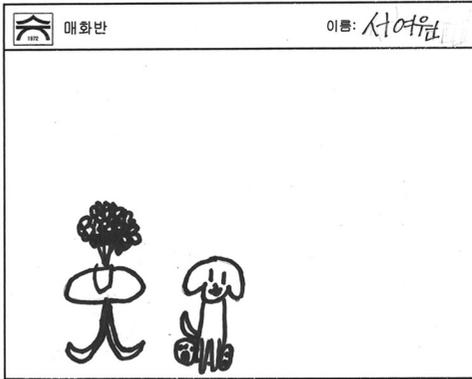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예요. 왜냐하면 내가 토끼띠
 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토끼는 너무 귀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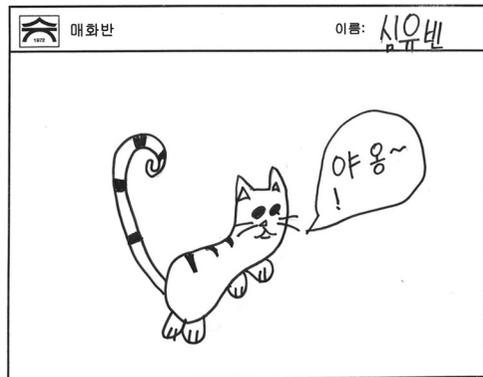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너무 귀엽고 털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강아지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이예요. 강아지는 귀여워요.
 저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이름은 쿠키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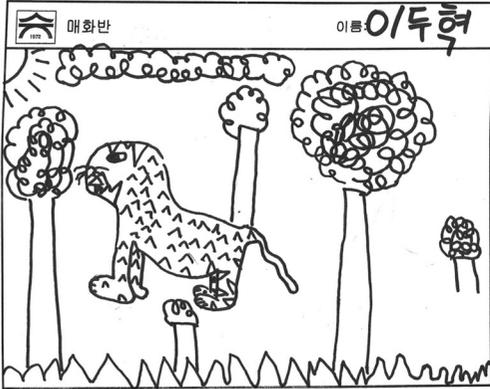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미나
 이랑 같이 놀면 귀여워서 좋아요.
 두 번째, 내가 잠때 도와 주
 요.



저는 강아지가 제일 좋아요. 강아지는 고양이
 보다 더 움직이면서 놀고 항상 같이 놀 수
 있어요. 강아지는 다람쥐를 쫓을때 귀엽고
 우스워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호랑이에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힘이 세고. 호랑이는
 사냥을 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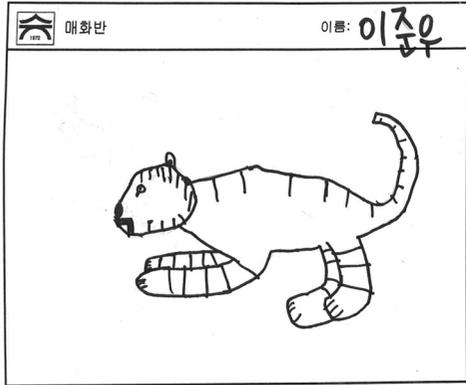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뱀입니다
 뱀의 비늘 무늬는 멋있습니다.
 뱀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바나나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공룡을 좋아해. 공룡은
 힘이 세서 좋아요. 또 크기가
 커서 좋아요. 공룡 멋진 사
 람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하얀
호랑이 이다. 내가
하얀 호랑이를 좋아
하는 이유는 내가
하얀 호랑이 띠여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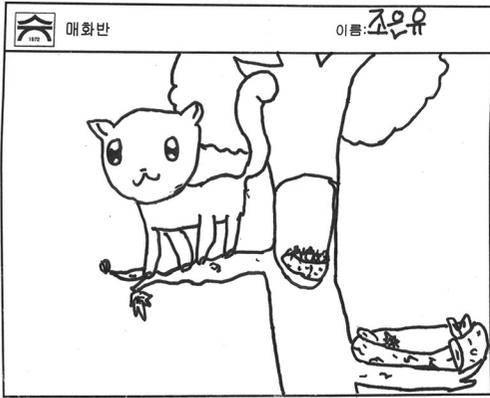


저번에 한국에
가어요. 방학에
한국 갔을 때가
생각 나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고양이는 밤에도 볼수있고,
진짜 조용해요. 벼개 처럼
부드러워요. 이레저 고양이
를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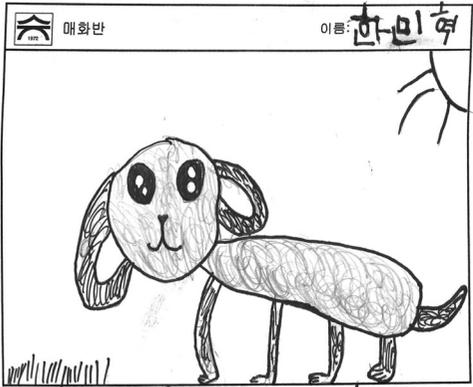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다람쥐예요.
 내가 다람쥐 좋아하는 이유는 다람쥐가 귀엽고
 빨라요. 다람쥐는 나무도 잘 타요. 나는
 다람쥐 많이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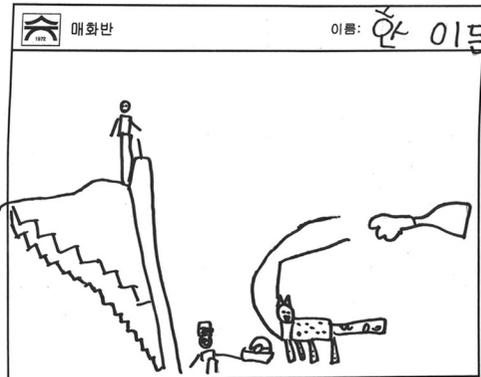


저가 좋아하는 동물은 아기
 원니다. 왜냐하면 이 벌바
 이 비비죽해서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부드럽고 귀여
 워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치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치타는 매우
 빠르니까 대단합니다. 나는
 빠른 것이 좋아요.





난초반

교사 한은영

해마다 세종 문집에 글을 쓸 때면 드디어 미시건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실감하곤 했는데 올해는 아직도 봄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난초반 친구들과 어떻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고 학기 초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제 고민들이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만 했던 짝꿍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발전해가는 모습이 보이고, 한글을 힘들어만 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고 서있는 순간은 항상 기분 좋은 흥분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 우리 난초반 친구들은 어느 때보다도 배울 준비가 되어있고,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이상적인 모습의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세종학교 교사로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귀와 마음을 열고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보람된 일 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난초반 친구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성원, 오수지, 줄리안, 김이안,
김서경, 안현진, 박지오, 조병현, 정윤석, 조민현, 주예성, 이상윤, 박재연

이름: 김서경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상임에 주로 먹어요. 미역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계속 먹어도 좋아요.



이름: 김성민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모두 다 설명입니다.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아빠는 재미있고, 엄마는 나를 돌봐줍니다. 하지만 언니는 나를 때리고, 오빠는 나를 미워합니다.

이름: 김인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에서 먹은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는 뜨거운 끓는 물에 여러가지 야채와 고기를 넣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고기가 너무 뜨거워서 먹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겨울에 먹으면 더욱더 맛있어요. 한국에 가면 드셔보세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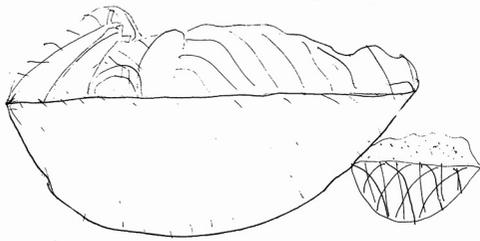
이름: 박재연

고리곰탕은 맛있어요. 이유는 고기가 들어있고 파를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겨울에 고리곰탕을 먹으면 힘이 나고 몸이 따뜻해요. 나는 고리곰탕을 자주 먹어요. 그래서 고리곰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름: 박지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그리고 다식과 이랑 귀리 이랑 같이 넣어 떡국 떡국인 '뜨거운서 아를 넣어서 먹어요. 사해 어머니 나이를 먹어요. 나는 떡국을 제일 좋아해요.



이름: 안현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우동이에요. 짜 짜면도 좋아해요. 닭볶음탕이랑 계란밥도 좋아해요. 아버지가 만든 짜장면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만든 미역국도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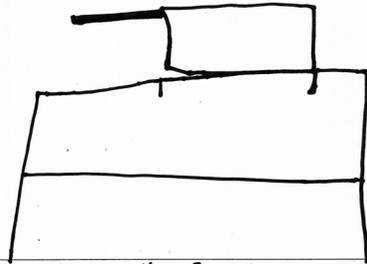
이름: 오수지



나는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를 제일 좋아 합니다.
그러나 김치 지개를 더 좋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김치를 먹으면 너무 맵습니다. 김치 지개는 두부
돼지 고기가 들어 가너 더 맛이 좋습니다. 김치에도
배추 김치, 줄갯 김치, 부추 김치, 파 김치, 오이 김치 등
종류가 많습니다. 자마도 한국 사람은 나와 같이
김치가 제일 좋아 하는 음식 일 것 입니다.



이름: 이장윤



라면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라면이 맛있어요. 얼마가 라면을
한달에 한번씩 끓여주세요. 나는
라면을 맛있게 먹어요. 라면을 만들면
뚜껑 냄비에 끓여요. 끓는 물에 라면과
스프를 넣어요. 삼분동안 기다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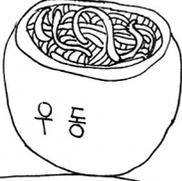
이름: 윤석



배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의 재료 양념, 고기,
고기, 참깨, 밥, 계란, 고추장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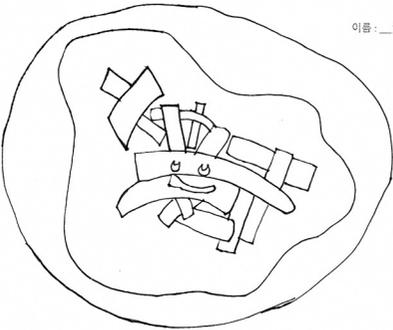
이름: 조민현



저는 우동이 좋아요.
우동은 정말 맛있어요.
저는 면을 좋아해요.
탱글 탱글 우동면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 중에
우동이 제일 좋아요.



이름: 조병현



저는 떡볶이가 좋아요.
떡볶이는 맛있어요.
저는 떡을 좋아해요!!!
떡은 잘게 해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 중에 떡볶이가
제일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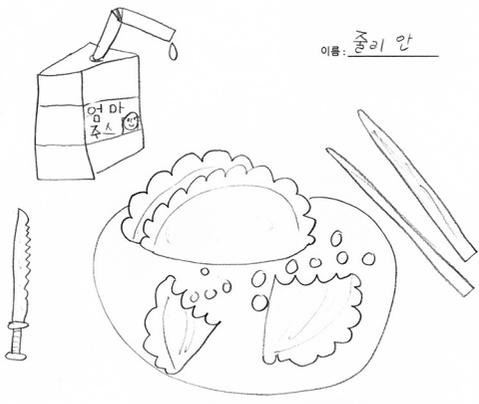
이름: 주여성



나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나는 잔어반찬, 생면, 그리고 김치를
좋아합니다. 나는 식혀를 진짜 좋아해요.
엄마는 요리 잘합니다. 나가 제일
좋아한 건 탕수육입니다!



이름: 정리안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u>만두</u> 입니다.
만두는 <u>진짜</u> 맛있습니다.
만두안에 <u>고기</u> 와 <u>야채</u> 있어요
만두 한 번 먹어보세요, 아 니면 <u>두개?</u>
나는 <u>만두</u> 를 좋아해요!



삽화-구하나



무궁화반

교사 최희순

노정환 선생님 그리고 박현옥 선생님이 이어 새로 무궁화반을 맡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힘차고 해맑아서 진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렸습니다. 학기 중간이라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학생들의 호응으로 무궁화반에 무사히 안착하게 된 것 같아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종학교에서의 첫 발자국을 내딛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사랑스러운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큰 용기를 얻어 남은 학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학년도 무궁 화반 학생들과 아름다운 세종학교에서의 추억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봅니다.



이주찬, 박연서, 함윤아, 오지효, 민건홍, 김하원,
서유빈, 윤채린, 김태영, 김한나, 최지용

내가 만약 코끼리가 된다면

무궁화상 윤채린

내가 만약 코끼리가 된다면 엄마 대신 긴 코로 쇼핑 가방을 들어주고 밥상을 차려드릴 거예요. 아빠가 집에 없을 때에는 엄마를 도와 무거운 짐을 들어줄 거예요. 집에 불이 난다면 제가 제일 먼저 화장실 욕실로



달려가 코로 물을 빨아들여 소방호스처럼 물을 뿌려 불을 끌 거예요. 아침에는 엄마가 힘들지 않게 코로 동생을 번쩍 들어 올려 깨우고 등에 태워서 동생을 학교에 데려다줄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동생들이랑 코로 링토스(ring-toss) 하고 놀아주고 등으로 미끄럼틀을 만들어 태워줄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제가 너무 커져서 지금 저희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아하~그러면 제가 서커스에 들어가 돈을 벌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을 사면 되죠. 하하하!

나는 책이 되고 싶어요!

아름다운상 박연서

나는 책이 되고 싶어요.

내가 책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요. 또 사람들에게 영감(inspiring)을 주기도 해서, 책을 읽은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책이 되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어디든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다녀요. 덕분에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 바다, 산……

책은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주어요. 책 속에 많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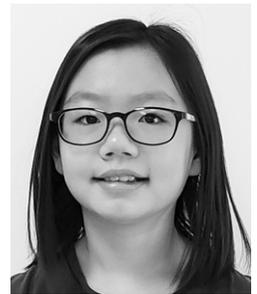
그리고 무엇보다 책이 제일 좋은 것은 재미있는 거예요. 나는 재미있는 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책이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 눈이 된다면

고운상 오지효

내가 만약 무엇이든 될 수 있다면 하얀 눈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이들이 눈이랑 노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눈은 바람의 도움으로 날 수 있어요. 나도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리저리 날아가보고 싶어요. 지구의 모든 곳을 여행하며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예쁜상 이주찬

내가 만약 과학자가 된다면 만들고 싶은 것이 매우 많아요. 첫째, 평생 숨을 쉴 수 있는 신기한 슈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또,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준도 공격도 쉬운 무기와 전투로봇도 만들고 싶어요. 그 외에도 빠르고 편리한 자동차, 움직이는 집, 안전한 배리어,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 입으면 죽지 않는 슈트까지. 제가 과학자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멋진 것을 만들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 기린이 된다면

김태영

내가 만약 기린이 되면, 목이 되게 길 거예요. 제가 더 길어서 기린이 되고 싶어요. 제가 아침으로, 블루베리 먹고, 점심에는 잎을 먹고, 저녁에는 잔디를 먹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걷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인간들이 오면 제 다리로 인간 발차기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제 아이가 날 떠날 때 저는 쉬게 될 거예요. 제가 기린이 될 때는 제 인생이 너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해리포터처럼 마법사가 된다면

김하원

해리 포터는 책도 읽고 영화도 봤어요. 저도 해리 포터처럼 마법사가 되고 싶어요. 해리와 론처럼 9 ¼ 플랫폼에 있는 기둥으로 카트를 밀고 들어가 보고 싶어요. 기차 안에서 초콜릿 개구리를 사서 먹고 개구리 박스에 있는 마법사 카드를 모으고 싶어요. 헤드위그처럼 똑똑한 올빼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올리 밴더 할아버지가 주는 마술 막대기를 꼭 사서 '아키오'라는 주문을 걸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원하는 물건이 내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어요. 해리, 론, 헤르미안느처럼 그리핀도르 마법학교의 학생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파티 음식도 먹고 싶어요. 덤블도어 교장선생님이 박수를 두 번 치면 음식이 나와요. 엘프가 만든 음식이에요. 퀴디치에서 해리처럼 seeker가 되고 싶고 투명 망토도 입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순간 이동하는 마술도 꼭 해보고 싶어요. 내가 해리 포터처럼 마법사가 된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파티시엘이라면

김한나

나는 나중에 크면 파티시엘이 되고 싶어요.

파티시엘이 되기 위해 먼저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내가 파티시엘이라면 가게를 콜로라도에 오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콜로라도에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셔서 언제든지 가게에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맛있는 케이크를 많이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제일 인기메뉴는 "내마음대로 테커레이션케익"으로 할거예요. 이 케익은 스펀지랑 크림만 내가 준비하고 테커레이션은 손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케이크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도그 트레이너도 되고 싶어요. 꿈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내가 만약 어른이 된다면

민건홍

나는 커서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게이머가 되려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특히 필요한 운동의 핵심 포인트는 허리와 손, 목, 허벅지 건강이



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으로 멋진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게이머가 되면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장가도 가서 아이도 낳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서유빈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학생들을 친절하게 도와주고 새로운 수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쉬운 방법으로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 모두 수학을 좋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진학도 잘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든 저한테 와서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원시인이라면

최지용

나는 아늑한 동굴 속 따뜻한 가죽위에서 깨어나 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소리쳤다.

“안녕, 토끼! 내가 너를 사냥해 야겠어!”

“아악!”

주먹 한방에 토끼 사냥은 끝났다.

나는 동물 사냥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냥하지 않으면



사냥을 당하는 야생의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다.

공터로 막 자리를 옮겼을 때 다리에 통증을 느꼈다. 아마도 토끼 사냥 때 좀 다친 모양이다.

주위를 두리번대다가 인디언을 발견했다. 나를 본 그가 소리치자, 다른 인디언들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쉬우!’ 화살이 날아왔다. 나는 소리쳤다.

“왜 나를 못살게 구는 거야?”

다시 힘든 전쟁 같은 하루의 시작이다.

내가 만약 늑대가 된다면

함윤아

내가 만약 늑대였다면 타이가 숲에 사는 한 무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내가 사냥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염소를 찢어서 무리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올 것입니다. 홀로 식사를 마치면 폭포의 꼭대기에 있는 나만의 장소로 향할 것입니다. 크리스털처럼 맑은 폭포의 물에서 샤워도 할 것입니다. 내 위에는 키가 큰 꼬불꼬불한 나뭇가지 줄기에서 뺏어 나온 잎들이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벚꽃의 험곡은 나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소나무와 꽃의 달콤한 향기를 마시고 있으면 해가 뜰 것입니다. 떠오른 해는 모든 것을 반짝이는 색채로 나의 주변을 가득 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장미반

교사 윤희란

미시간의 기록적인 추위가 지나가고 나니 따뜻한 햇살과 함께 봄이 다시 옵니다. 세종학교가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는데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이제는 장미반 교실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 장미반은 서울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어느 해보다 모둠 활동이 활발하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모둠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를 위해 항상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교시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 스스로 스낵시간까지 이어서 발표 연습을 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장미반에서는 모둠 활동 외에도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수업 내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세종 글짓기 대회에서 장미상을 수상한 수은이는 언제나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모든 학습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잘 하는 서진이는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습니다. 모둠 활동을 할 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채린이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잘 도와주었고 글쓰기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서 “제2회 이순신 글짓기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밝고 쾌활한 준형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주어진 과제마다 최선을 다했고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준현이와 숙제를 잘 해오는 초연이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정민이는 친구들이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글씨를 예쁘게 쓰는 하나는 숙제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장미반 학생들이 모두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하준형, 조정민, 이준현,
최서진, 구하나, 김초연, 윤수은, 박채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읽기"

장미상 윤수은

저는 책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책을 읽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책은 재미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알게 돼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경험하는 것들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분에 맞는 책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슬픈 책을 좋아해요. 슬픈 책을 읽으면 주인공의 이야기가 슬퍼서 제 슬픔을 잊어버리게 돼요. 기쁠 때는 어떤 책을 읽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그것에 대한 책을 많이 빌려요. 한 번은 뜨게질을 배우고 싶어서 뜨게질에 관한 책을 20권쯤 빌려서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모자와 목도리를 뜨게질을 해서 만들었어요. 모자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 만든 다음에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리"

아름다운상 박채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제 강아지 "도리"입니다. 도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는 도리가 귀찮고 싫기만 했

어요. 옷이나 이불을 깔지 않으면 도리를 제 무릎 위에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리에게 정이 들었어요. 도리와 정이 드니까 도리를 안을 수도 있게 되었고 도리와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리가 처음으로 병원에 갈 때는 차에서 벌벌 떨었어요. 제 생각에는 도리가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족과 떨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가족과 또 떨어져야 한다는 공포심 때문에 무서웠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도리가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 항상 위에 올라가 있던 꼬리도 축 처져 있었어요. 진찰받으러 갔을 때 도망치려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희 가족이 밥을 먹을 때 도리가 먹고 싶어서 식탁위를 바라보는데 그 애절한 눈빛을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고기를 몰래 준 적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빠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도리가 자라면서 생긴 새로운 취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망치기예요. 틈만 나면 도망가는데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름에는 도리가 금방 지쳐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힘이 넘쳐서 잡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도리가 좋아요. 도리에게 화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도리가 있어서 행복해요. 도리는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래밍"

고운상 최서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 영상, 기계, 스

마트폰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컨트롤러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반응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없거나 잘못되면 반응이 이상하거나 없을 겁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제 꿈은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나 테스터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에서 프로그램으로 게임과 비디오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게임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없다면 많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계, 로봇, 컴퓨터, 게임, 핸드폰, TV, 아이패드 등 더 많은 것을 작동하는 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머가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게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일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나라처럼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자바, 자바 스크립트, 블록, 파이썬, PHP, 루비, 스위프트 등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다 좋은데 초보자라면 저는 블록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프로그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모님"

예쁜상 하준형

저는 세상에서 엄마와 아빠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슬플 때도 있지만 부모님의 꾸중으로 인해서 한 걸음씩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엄마와 아빠께 항상 감사합니다. 아빠는 저희 가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을 하시



고 매일 저랑 놀아주시고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대화를 많이 해서 좋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고 아빠와 제가 열심히 살도록 도와주셔서 저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제가 힘들 때 칭찬으로 제 기분을 풀어 주시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의리가 있어서 제가 무서울 때 같이 영화도 보고 수영장에 함께 가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께 앞으로 효도도 많이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평생토록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겁니다. 저도 저희 아빠처럼 착한 아빠가 되어서 미래의 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조정민

제가 정한 글짓기의 주제는 공룡입니다. 제가 공룡을 선택한 이유는 공룡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룡 장난감과 공룡 영화를 통해서 공룡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룡 장난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공룡이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룡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공룡이라면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룡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공룡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도서관에서 공룡에 대한 책을 빌려 보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때 저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고학자를 꿈꾼 이유는 공룡의 화석을 발견해서 박물관에 전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제가 되고 싶은 직업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준헌

나는 수족관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수족관에는 상어, 거북이, 물고기들이 많아요. 바다 물고기를 보니까 한국에 갔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한국에 가는 것이 좋아요.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목욕탕도 너무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랑 제주도에서 케도 잡았어요. 저는 한국도 좋고 수족관도 좋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김초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재미있어요. 캐릭터가 귀엽고 예뻐서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 대한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내 그림은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워요. 나는 캐릭터를 많이 그리고 싶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유튜브에 올려서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면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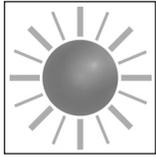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구하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애니메이션 만들기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사실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프레임을 하나하나 각각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 움직이게 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직접 선택한 색과 형태로 견게 하고 말하게 하고 춤도 출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요즘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구상 중이다. 주인공 캐릭터가 크리스마스에 유성비를 보고 소원을 빌고 잠이 드는 내용이다.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프레임을 만들 생각이다. 내가 곧 만들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





해반

교사 유윤정

올해도 어김없이 문집을 만들고 인사말을 고민하는 시간이 왔다. 교사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았는지 지난 일 년을 돌아본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사는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말과 우리 역사 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나는 그러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보듬었는가 말이다. 해반에는 유난히 목소리가 크고 장난꾸러기들이 많았는데, 나는 함께 호흡하기보다는 엄격하고 통제하는 담임이었음이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귀찮을 토요일 주말학교에 성실하게 출석한 우리 해반 학생들이 고맙고 기특하다. 또 올해는 글쓰기 숙제를 자주 내 주었는데 아이들의 글 속에 담긴 생각을 읽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맛있는 한식,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들,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귀한 마음들,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읽는 나를 웃음 짓게 만들었다. 올해도 나에게 귀한 시간을 선물해 준 해반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강영준, 김찬영, 강솔대해, 한준혁
 윤지환, 김민성, 김래오, 김단, 이상엽
 김예원, 신서인, 박제인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한국

해상 이상엽

제가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번만 한국에 가보았고 거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팔빙수, 삼겹살, 갈비, 차돌박이 등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저는 다양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도 먹고 싶습니다. 또 한국에서 떡볶이, 튀김, 순대, 만두 같은 길거리 음식도 먹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은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노래방에 가서 즐겁게 노래하기도 하고, 윷놀이와 같은 전통놀이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많은 곳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에 가서 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의 분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분당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여행하면 한국어를 많이 연습하고 배우게 돼서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Percy Jackson

아름다운상 김찬영

나는 좋아하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Percy Jackson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Rick Riordan입니다. 나는 그가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4학년 때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책이 서스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쓰여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Percy Jackson 책이 나오면 하루 종일 읽을 만큼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제우스의 번개가 사라지고 포세이돈의 아들인 퍼시 잭슨이 도둑으로 지명됩니다. 제우스는 포세이돈에게 번개를 내놓으라며 전쟁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퍼시 잭슨이 번개를 되찾아서 전쟁을 막으려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내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퍼시 잭슨입니다.

이 책은 두 권의 시리즈가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링 시리즈입니다. 나는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호주

고운상 김예원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호주 바다가 예뻐서 거기서 수영하고 싶어요. 신기한 산호도 있어서 바닷속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서 일출을 보고 싶어요. 호주 음식도 먹어 볼래요. 텔레비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호주 스테이크가 맛있다고 해요. 나는 호주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맛이 궁금해요. 또 호주 동물들이 보고 싶어요. 한국이랑 미시간에는 없는 코알라와 캥거루를 사진을 찍어 보고 싶어요. 호주 사막도 가보고 싶어요. 책에서 봤는데 사막이 무척 덥고 신기해서 가보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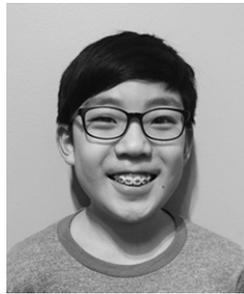


어요. 가족이랑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호주에 가면 아이폰을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사진 찍고 미시간으로 와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호주 자석을 사서 냉장고에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호주 여행을 오래오래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주는 미시간보다 더 더우니까 밖에서 더 많이 놀 거예요.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이탈리아

예쁜상 윤지환

제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 가고 싶은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첫째는 역사 때문입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역사를 특히 좋아합니다. 로마 왕족은 B.C.75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멋진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A.D.79년에 있었던 폼페이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로 폼페이는 3미터의 화산재에 묻히고 거의 1500년이나 지나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는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미국식으로 만들어진 이탈리아 음식은 먹어봤지만 이탈리아식 이탈리아 음식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먹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는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에 가고 싶고, 시실리에서 놀고 싶고, 이탈리아의 많은 유적지들을 배우면서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고 싶은 이유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호주

강솔대해

세계 어디나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나는 호주에 갈 거예요. 나는 개를 기르고 있고 동물을 좋아해요. 호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있어요. 호주에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다양한 야생 동물이 살고 있는 호주 사파리예요. 여기에는 캥거루와 코알라 같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낙타, 기린, 코뿔소, 타조 등 다른 지역에 사는 동물들도 있어요. 또한 호주의 동북부 바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가 있어요. 이 산호초는 크기가 134,634 평방 마일이에요. 여기는 여러 개의 암초와 90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초들은 다양한 해양 동물들로 가득해요. 보트를 타고 물고기, 바다거북, 돌고래와 다른 해양 생물들로 가득찬 다채로운 산호초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호주를 방문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레밍턴, 파블로바, 치킨 파르미자나 같은 맛있는 호주 음식을 먹어 보고 싶어서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시드니예요. 이것이 내가 호주에 가고 싶은 이유들입니다.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영국

강영준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영국이다. 내가 여섯살 때 런던을 여행했지만, 그때는 여행중에 아파서 제대로 즐기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 다음번에 다시 여행을간다면, 나는 토트넘 스타디움에 가서 축구를 보고 싶다. 왜냐하

면 내가 토트넘 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스코틀랜드에 가서 Loch Ness 몬스터를 찾고 싶다. 또 스톤헨지를 보거나, 평화로운 시골마을 웨일스를 가고 싶다. 런던으로 와서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물들을 보고, Eden project에 가서 실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이층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를 구석구석 다니고 싶다. 여행의 마지막에는 Harrods에 가서 장난감들을 구경하고 쇼핑하고 싶다. 난 그래서 할 것이 많은 영국에 가고 싶다.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이탈리아

김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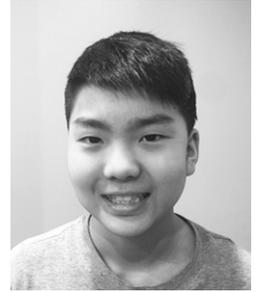
제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는 예쁜 건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자, 파스타, 그리고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서 저는 돈을 다 모아서 갈 계획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게 놀고 싶고, 가족들과도 같이 웃으면서 피자를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재미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기념품도 사고, 오래된 유물들도 다 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 중에도 가고 싶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호주에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들도 정말 멋진 것 같고 호주에 가서 특이한 동물들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사회

김래오

제 생각에는 미래에는 차가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자율 주행차가 나오니까 조금 있으면 날아다니는 차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차는 쓰임이 많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숙제도 할 수 있고, 가족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길이 없으니까 조심해야 하고 길을 잘 정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로봇이 더 발전되어 생활에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로봇이 많이 쓰이면 생활이 더 편해져서 좋은 점도 많지만,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친환경 에너지와 친환경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많이 발전되어 지금보다 깨끗한 지구를 만들 겁니다. 환경은 우리가 사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The Hobbit

김민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The Hobbit'입니다. 열세 명이 성에 살고 있었는데, 용이 공격을 해서 성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돌아갔



습니다.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적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성에 도착해 용과 싸워서 성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사회

박제인

저는 미래에는 기술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봇이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자율 주행 차량이 나와서 아무도 운전을 직접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에는 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발전된 기술 덕분에 집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많은 종류의 로봇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청소하는 로봇, 요리하는 로봇, 숙제를 도와주는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로봇들 덕분에 엄마는 진짜 편해질 것 같습니다. 로봇이 많이 도와주지만 나는 조금 무섭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직장이 없을 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로봇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래가 조금 무섭습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책 3 little words

신서인

이 책은 애슐리라는 소녀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애슐리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엄마는 겨우 16살이었기 때문에 애슐리는 9년 동안 위탁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세 번이나 경찰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에

애슐리는 할아버지와 몇 주를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가 빚졌던 남자에게 4번이나 총에 맞았고 그중 두 번은 머리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애슐리는 결국 잘 극복하고 성장했으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책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은 애슐리라는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이며 또한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애슐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은 힘든 상황에서 사는 어떤 이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사회

한준혁

내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봇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것이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발전된 무기와 전쟁으로 사람들은 폭력적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물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미래사회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활용을 잘 해야 하고 전기를 아껴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해변과 다른 오염된 지역을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이상기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우리는 미래에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솔반

교사 김계현

사춘기가 찾아오는 때인 우리 솔반 학생들, 부모와 또는 친구들 등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감정의 기복과 갈등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장래라는 긴 시간으로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일듯합니다. 이 통과 의례를 잘 지나가며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이들 각각의 정체성과 당당함의 기초를 만들어가자는 마음으로 솔반 학생들과 지난 1년의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곳 세종학교에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옵니다. 아이들은 배움의 공간이자 나눔의 공간으로 세종학교를 이용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특별한 나눔을 이 공간 안에서 합니다. 다른 공간에서 겪는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하며 서로를 격려해줍니다. 이것은 교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등교를 위해 조금은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지만, 스스로 동기를 찾아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부모님들께서는 보람을 얻기를 기대해봅니다.

토요일에 세종학교 안 오면 딱히 할일없으니 와서 한국어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온다며 당찬 모습을 보여주는 세희, 한국어 공부하는 하긴 싫지만 선생님이 시키면 하고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술수업은 꼭 참가해야 한다는 영원이, 수영 때문에 항상 토요일이 바쁘지만 옷 안에 수영복까지 입고 학교에 오는 씩씩한 은서,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그러나 조금은 수줍어하는 예쁜 세빈이, 자기주장이 있고 자아에 대한 성찰을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명이, 청일점이면서도 쫓쫓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재미있는 말도 잘하는 그리고 반 여자친구들의 온갖 구박에도(?) 웃음으로 넘기는 진선이, 아직은 한국어 학습이 초기 단계이지만 이 학교를 오는 목적의식을 뚜렷이 세우고 등교하는 속이 짝 찬 선이, 이 학생들 모두의 미래를 적극 응원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많은 이 아이들을 제 기억 속에 뚜렷이 저장해 놓습니다.



전영원, 오세빈, 김세희, 배은서, 정다명, 유선, 표진선

나의 꿈

솔상 표진선

저의 꿈은 어른이 돼서 3번 가드 농구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농구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 경기를 하였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NBA를 보면서 Isaiah



Thomas 덕분에 더 농구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Isaiah는 현재 NBA 선수들 중에서 가장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2016-2017 플레이오프 때 28.9를 득점했습니다. Isaiah는 자신이 키가 작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Isaiah는 농구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Isaiah는 사람들에게 키는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랑과 존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것처럼 나중에 NBA에서 한번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많아서 농구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일이 많아서 농구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꿈은 농구선수입니다. 제 꿈은 NBA에서 첫 번째 한국인 농구선수, 그리고 3번 가드, 슈퍼스타가 꿈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

아름다운상 오세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행복입니다. 저는 행복이 삶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 없이 살면 삶을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 때 즐길 수 있게 해주고, 또는 어떤 순간을 재미있게 해주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행복이 왜 저

에게 소중한냐면 나쁜 일이 있어도 행복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또는 미소를 짓게 해줍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서 더욱더 저에게 중요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노력한 만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에너지인 행복을 느끼고 또는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행복이 가장 소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삶의 에너지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면 좋겠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들

고운상 정다명

저에게 소중한 것은 친구들입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는 서원이입니다. 사학년 때부터 같이 친하



게 지내오다가 오늘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원이랑은 학교도 같이 다니고, 매주 일요일마다 같이 교회에 다니다 보니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어색하고, 서로를 잘 몰랐지만 갈수록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한테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장난도 같이 치면서 자매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저와 서원이의 관계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서로 싸울 때도 있었고, 서로에게 기분 나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둘 사이에 큰 싸움이 있어서, 한동안은 서로 애

기도 같이 안 하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기분은 나빴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더욱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자주 얘기를 거의 매일 하고, 더 편하게 지내왔습니다. 서원은 저에게 정말 자매 같은 친한 친구입니다. 싸울 때도 있지만 항상 다시 화해하고, 걱정이 있을 때 서로에게 얘기하는 친구인 서원입니다. 그리고 같이 웃고, 울고, 장난치고, 서로를 놀립니다. 서원이랑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위로하고, 자매 같은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멋진꿈

김세희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씨월드에서 돌고래들이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조련사들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공을 던지고, 심지어 서서 뒤로 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해 보였습니다.



멋진 조련사들은 물 밖에서 먹이도 던져주고, 물속으로 들어가 돌고래와 한 팀이 되어 최고의 환상적인 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련사들의 수영실력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 5학년까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면 마음속에 속상한 일, 화나는 일이 잊어버려지고 수영을 마칠 때는 몸은 조금 힘들지만 마음은 정말 개운해집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양이나 강아지는 키우기 어렵지만 물에서 사는 돌고래는 마음껏 안아주고, 놀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귀여운 돌고래와 제가 제일 잘하는 수

영을 함께하는 일이라면 정말 최고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

배은서

나는 개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들과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개들은 말썽을 잘 부리고 관리하기가 힘들어



요. 개들이 관리하기 힘들면 주인에게 학대받거나 길가에 버려지게 될 수도 있어요.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개들은 주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개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인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개들의 감정을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면 개들과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개 조련사의 목표는 사람과 개들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들을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개 조련사가 되고 싶어요.

나의 꿈

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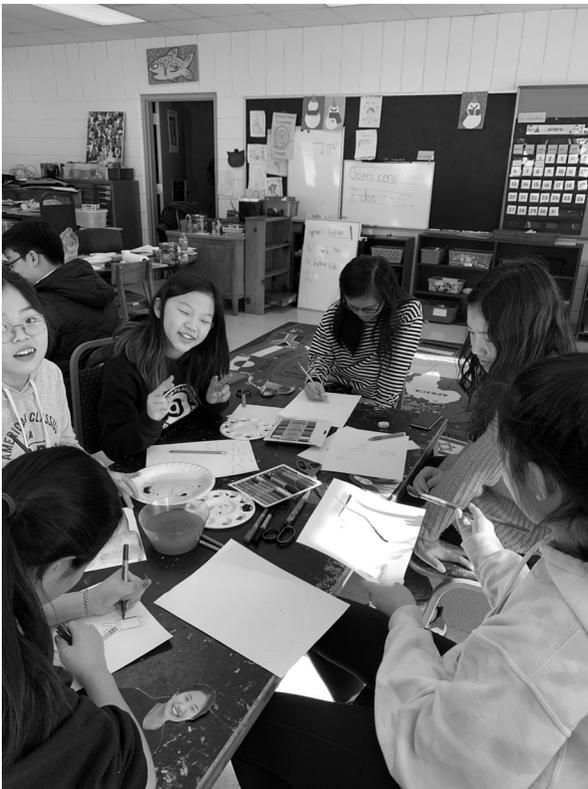
내가 다 자란 후에, 나는 웹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웹툰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하고 이야기를 쓰는 것에 능숙합니다. 내 생각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나의 예술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웹툰이라서 웹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내게 소중한 것

전영원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내 가족입니다. 이유는 내 가족들과 밥 먹고, 집에 같이 있고, 서로 사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가족은 많이 시끄러운데 아직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지만 싫어하기도 해요.





세종학교 중 고등부 교사들이 모여 체제 개편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뜨거운 여름 방학을 보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종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업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풍부해진 지식과 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 속에 개편된 체제이기에 준비하는 과정 내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문학 논술 수업이었습니다. 역사, 문화, 전통과 가치,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여기에 인문 정신을 담아 우리 학생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는 과목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 순간에도 즐겁게 만들 수 있었고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행복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글을 집에 가져와 침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 내면에 어떠한 가치를 품고 있는지를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실존주의 교육철학자 볼노우(O.F. Bollnow)는 “만남이 교육에 선행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 논술은 특성상 학생과의 교류와 소통 그리고 교감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사의 지식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학생과의 참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세종학교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더 많은 한글학교들이 인문학 논술 수업을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기에 그만큼 우려도 많았고 힘든 여정의 한 해이긴 했지만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지해주셨던 저의 멘토이자 동료이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감동과 인간애들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어 훈훈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쓰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시간은 흘러 지나간 과거가 될지언정 사람은 남는다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학교를 만들어 가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학교 중 고등부 학생들! 좋은 생각과 의견들 나눌 수 있어서 고마웠다.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선생님이 성장했듯이 너희들 또한 그러했기를 바란다. 글에 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오길 바란다. 늘 그렇듯 너희들의 눈부신 미래를 응원할게!



달반

교사 박혜인

세종학교에서 첫 인연을 맺게 된 달반이기에 제게는 더 뜻깊었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달반 친구들의 순수하고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게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말 그대로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시간에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생활한지 오래된 아이들이 어휘를 익히고 문법에 맞춰서 말하고 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모두가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소중한 주말, 매주 토요일 세종학교에 성실히 참여하여 수업을 들어주었고 덕분에 달반을 가르치면서 저 또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준 우리 달반 친구들, 신경 써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찬민이, 서연이, 곁이, 솔이, 도희, 진영이, 헤린이, 수혁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모두 각자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랄게♡



강솔푸른, 김서연, 김도희, 정혜린, 한수혁, 이진영, 김결, (정찬민)

나의 꿈

달상 강솔푸른

여러분은 마틴루터킹 목사에 대해 아시나요? 저는 마틴루터킹 목사를 존경합니다. 그는 미국 흑인에 의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마틴루터킹 목사처럼 누군가를 도우면서 세상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선생님과 소아가 의사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일이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과 대학에 진학해 의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의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대학교 학비가 비쌀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싶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되면 아픈 아이들을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와준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틴루터킹 목사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큰 일을 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의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도 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화로 나아가는 중이다

달상 정혜린

남과 북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양측의 정상들이 만나 정상회담도 가졌다. 남측의 정상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을 방문했고 북측 정상 김정은 위원장은 별일이 없는 한 최대한 빨리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통일은 생각대로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다. 서로 다른 체제를 잘 통합해야 하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되어 있던 기간만큼 생긴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 표준어도 새로 정해야 한다. 이런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통일이 되면 많은 장점들도 있다. 한반도는 전쟁과 핵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이며 통일로 인해 국토는 더욱더 효율화 될 것이며 시장 또한 확대 될 것이다. 철도가 이어지면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물류 운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장점이 크다. 그리고 이산가족 또한 그리워하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도 들겠지만 이는 일정 기간이 다하면 마침표를 찍게 된다. 하지만 통일 편익은 계속 될 것이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통일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남한과 북한은 긴 역사 속에서 함께 지내온 한 민족인데 고작 60년 떨어져 지낸 것으로 영원한 분단이 된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독일을 보더라도 그들이 통일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통일은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남과 북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고 서로의 장점들로 채워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꿈

고운상 김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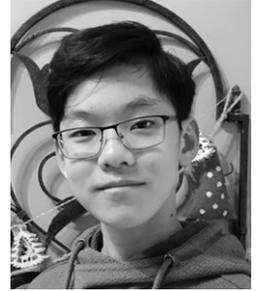
저희 꿈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수의사, 성우, 디자이너 그리고 파티시에였습니다. 제가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였고 성우는 특이하고 다양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서 되고 싶었고, 디자이너는 그림에 관심이 많고 내가 디자인한 것을 실생활에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파티시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물었더니 엄마께서 좋아하는 직업을 하게 되면 잘 할 수밖에 없다고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동물과 관련된 수의사를 꿈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티비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은 ‘무한도전’이었습니다. 그때 나쁜 기억 지우개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멤버들이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것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멤버들을 가르쳐주는 멘토들 중 윤태호라는 웹툰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과학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꿈이 뭐야?”라는 질문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수의사’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화로 나아가는 중이다

예쁜상 김결

65년 전 북한과 공산주의 동맹국들은 남한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되기를 위해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으로 이뤄진 전쟁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두 나라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악명 높은 핵실험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과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남한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생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한국 전 중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이 연결이 되어 있어 중국과의 교역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토지 규모와 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합쳐진다면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 열심히 노력한다면 6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하나의 통일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꿈

김서연

나의 꿈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친하게 놀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마음을 다해 이해를 하고 사랑을 나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의 꿈처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진영

남한과 북한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누가 먼저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가족과 사회 시설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평화 회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의 길로 나아가 갈 때입니다. 한국은 로지텍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제11위 생산국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핵실험과 군사력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와 같은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남한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좀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열



심히 노력해서 통일이 되면 강한 군대를 가지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꿈

정찬민

나의 꿈은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은 게임 제작 모험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에 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잘 응용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의 길도 있을 테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걸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들이 필요하고 어떤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들을 잘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나의 꿈

한수혁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축구할 때가 가장 즐겁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처음 축구를 해봤습니다. 나는 축구를 잘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나와 같은 팀을 하기 원했습니다. 체육 선생님도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그 말을 듣고 많이 기



뻘었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축구팀에 가입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여름 방학 동안에만 하는 축구 교실에 등록을 시켜주셨습니다. 방학이 지나고 엄마한테 계속 축구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이미 정식 팀에 들어가는 트라이아웃을 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선수가 모자라는 가장 못하는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트래블 팀에 들어가서 하는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주전으로 뛸 수도 없었고 힘이 들어서 오랫동안 경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기 규칙을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팀에는 인사를 하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나는 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경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축구 실력은 많이 좋아졌고 일 년이 다 되어갈 때 나는 우리 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다시 트라이아웃을 했고 나는 훨씬 더 잘하는 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 축구 연습을 합니다. 여러 코치들의 코치도 받고 잘 모르는 팀에 조인해서 경기도 함께 하며 많은 시간을 연습합니다. 코치들도 부모님도 저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니다. 저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을 상상하며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꿈은 꼭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별반

교사 김세정

학기 중간에 별반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많지만, 남은 기간 동안 즐겁고 유익한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마다 별반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은 저에게 유익하였으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별반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자녀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시고, 학교행사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별반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희현, 전주현, 최민기, 심진희, 정유진
이재원, 이준근, 이예원, 정다은

나의 소중한 삶 - 내가 지내온 삶 속에서 추천하고 싶은 삶의 태도

별상 이에원

인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스물네 시간이다. 그 똑같은 시간을 잘 쓰는 사람과 낭비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한 인간의 삶이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내가 크거나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실망하거나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내가 목표한 것을 언젠가는 이루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오디션에 합격해서 윈드 앙상블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의 플룻 실력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형편 없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 낙담한 나머지 낮은 단계인 심포니 밴드로 낮출까도 고민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날 부터 매일 30분씩 열심히 연습했다. 그 후로 점점 실력이 늘어 웬만한 곡은 잘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음악시간이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윈드 앙상블에서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긍정적인 자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막연히 좋은 결과를 바라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의 장래희망은 외과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클럽 활동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

해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제일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차이보다 중요한 통일과 평화

아름다운상 심진희

요새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 될지 안될지가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대부분이 관심이 많은 주제인 통일은 논란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많은 단점이 있어도 통일은 두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통일은 100% 완벽한 건 아니예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맞지 않아요. 실제로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한의 자본을 이용해 국토개발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이 확대될 것이예요. 게다가 두 나라는 언어가 다르니까 일석이조로 선생님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고 공용어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통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통일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통일하면 대한민국과 북한 둘 다 혜택이 아주 많을 거예요. 두 나라에는 다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남한의 경기는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경기는 엄청 느린데 천연자원이 남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한 나라가 천연자원이 많이 있을 것이고 경기도 아

주 좋게 될 겁니다.

경기와 자원뿐만 아니라 통일은 두 나라의 민족을 도와줄 거예요. 통일을 통해 전쟁이 드디어 끝날 수 있니까 사람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북한 사람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통일에서 오는 평화는 전 세계를 도와줄 것이예요.

통일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할 것이예요. 통일이 되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나쁜 것보다 좋은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화합하여 평화를 달성하면 전 세계에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갈등과 대립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음과 희망을 통해서 통일과 평화를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차이보다 중요한 통일과 평화!

내가 지내온 삶 속에서 추천하고 싶은 삶의 태도

고운상 정다운

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한다면 모두가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가끔 나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하루 종일 우울하고 기분 나쁘게 지내는 것보다 큰 사고 나지 않고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행복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을 따라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에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어 삶에도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어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게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스윈들(charies swindoll)이 말하기를 “인생의 10%는 너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다”(Life is 10% what happen to you and 90% how you react to it). 어차피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반응을 하면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날로 살면 인생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태도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쁜상 이지민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상황과 주변이 좋지 않은데도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할까? 저는 당당함이 자기 자신에 있는 믿음에서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신에게 믿음이 있으면 남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상관 안하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데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면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신뢰가 생기고 서서히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면 남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 점점 익숙해지고 진짜 성격이 당당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싶지



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당당해질 때까지 그런 척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고 실제로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점점 더 많이 이룰수록 당당해지고 더 그럴 동기가 생깁니다. 당당함은 가지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꿈

김수진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꿈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꿈이 없다. 나는 그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을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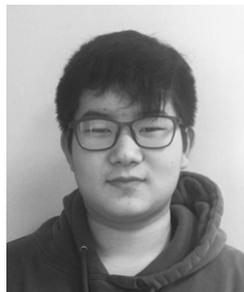
예전에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걱정 없이 밤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고 싶고 또 그것을 이루고 싶다.

나의 꿈

박준수

나의 꿈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로보틱스 클럽 활동을 하고 있어요. 로보틱스 클럽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고, 재료를 만드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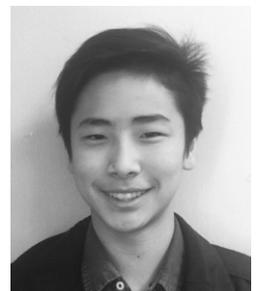


보틱스 클럽 맡고는 집안에서 물건을 조립하고 수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엔지니어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설계 과정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가 된다면 나는 그 일이 나를 나에게 적합하고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통일은 사랑이다

배재현

몇 달 전, 우연히 한국 뉴스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최고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이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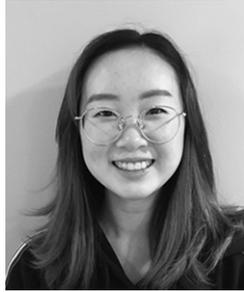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 통일이 왜 필요할까?였습니다. 예전에 미국인 친구가 나에게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으로 같은 언어, 같은 조상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해서 하나의 나라로 사라 가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이 합쳐져서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 경제력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여러 어려운 문제들도 많겠지만 먼 미래에는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서 취하게 될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남한과 북한을 잇는 철도를 타고 여행을 하는 꿈을 키워 봅시다.

나의 꿈(꿈이 없어도)

손유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았다. 어른들은 나를 보고 “유진은 꿈이 참 많고 다양해서 좋겠다”라고 했다.. 특히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랑 미술 레슨받고 특하면 연필을 붙잡고 항상 그림을 그



리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커서 미술 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다녔다. 미술이 내 삶의 행복이 되었고, 어디 가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미술을 좋아한다는 걸 말 안 해도 알았다.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같이 나중에 커서 아티스트가 되자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너무 쉽게 본 것 같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자, 공부하느라 그렇게 좋아했던 미술을 자주 못하게 되었다. 그 꿈이 많았던 밝은 꼬마가 철없는 사춘기 소녀가 되며 제 꿈이 대체 뭔지 모르겠다. 나에게 미술은 뛰고 실력이 충분한지 모르고 자신이 부족했다.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서 친구와 떨어지게 됐다. 학교생활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바빠지고 꿈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꿈 없이 살다 보니 인생이 지루하고 뭘 위해 살고 공부하는지 모르겠고, 내 미래가 깜깜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의 SNS를 찾았다. 오랫동안 못 만나고 대화를 못했던 친구를 찾아서 반가웠지만, 그 친구가 올린 사진들을 보며 충격도 받았다. 그 친구는 자기의 그림 작품을 올렸고 학교에서 미술 과목에 대해 얘기했고 미술대회에서 상 받은 이야기를 올렸다. 어렸을 때같이 미술하고 의욕 있게 즐겼지만, 나와 달리 친구는 자기 실력에 자신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 와서 꿈을 이루었다. 내가 절망하는 동안 그 친구는 끝없이 연습하고 준비해왔다. 친구를 보면서 나는 반성했다. 나는 내가 미술은 못하고 할 기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해서 못한 것이다. 나와 내 친구는 같은 레벨에서 시작했지만 친구가 자랑스러웠고 부러웠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

면서 나는 새로운 꿈을 잡았다. 커서 뭘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열심히 일하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이다. 미술을 하든 다른 취미를 찾든 포기를 안 하면 내 친구처럼 항상 꿈을 향해 노력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여러 가지 꿈이 생길 거라고 믿는다.

내가 지내온 삶 속에서 추천하고 싶은 삶의 태도

윤지윤

내 나이 15. 아직 많은 경험을 해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며 한 살씩 자라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 그중에 항상 정직하고 친절하라고 말씀해 주셨



다. 내가 친구라는 뜻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직과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 지 겪고 있다. 어렸을 때, 내 별명은 말 없는 아이였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고 매일 혼자 놀았다. 학교에서 집에 오면 엄마는 “지윤아, 그러면 네가 먼저 가서 같이 놀래” 하고 물어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무서웠다. 만약에 상처를 받는 생각이 너무 무서웠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다른 아이들도 기다렸다는 듯 나와 신나게 놀았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많다. 내가 먼저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한다면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다. 또 누구를 만나던지 항상 정직하게 만난다면 그 관계는 정말 오래오래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고 친절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짧은 15년 동안 배운 것은 친절함과 정직이 많은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면 길고 좋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내온 삶 속에서 추천하고 싶은 삶의 태도

이연우

최근에 나는 행복으로 가는 열쇠는 스스로 서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독립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사회의 관습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립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스스로 서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미래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이 세상은 로봇처럼 완벽하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실수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원하는 성공은 사람들에게 대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은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의 꿈과 세상이 원하는 것과의 발란스를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꿈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정말로 매일 밤 꿈을 얻기 위해서는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없으면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이 해내는 것이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행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꿈

이재원

내가 어렸을 때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다. 조금 더 크면서 나의 꿈은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는 거였다. 그리고 작년에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뭐가 되고 싶은 지를 모르겠다. 나는 뭐를



하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내가 뭐를 원하는 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많은 압박감을 느낀다. 아빠는 빨리하고 싶은 직업을 못 찾으면 좋은 대학교에 못 간다고 그러시고 엄마는 매주 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신다. 게다가 나의 누나는 벌써 의사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봉사를 매일 하고 있고 내 친구들 중에서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 애도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멍청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나에게 취미는 있지만 취미는 취미로써 생각하고 직업으로 할 자신은 없다. 그 취미를 잘 할 수 있을까 봐 겁이 나서 그렇다. 특히 미술이나 음악을 만들고 싶지만 직업으로 하기에는 실력이 없는 것 같다. 매일 유튜브에서 내 나이만 한 애가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난다. 학교의 공부를 못 따라갈까 봐 걱정이 될 때도 많다. 특히 수학은 요즘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것 때문에 요새 시간관리를 못하고 있는지도 나의 많은 문제의 하나다.

이런 두려움이란 걱정들이 있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꿈을 찾을 자신감이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뭐든지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니까 그 이유는 내가 미래에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니까 그 이유는 내가 겁만 많이 타고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 그 이유는 내가 문제를 찾으면 그 문제를 끝

까지 고치려고 할 것이니까. 많이 어려워도 포기할 안 할 것이니까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에게서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자신감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평화로 나아가는 중이다

정유진

대한민국과 북한은 1950년부터 사이가 좋지 않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랑 통일을 하려는 중이다. 통일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 중의 하나는 이산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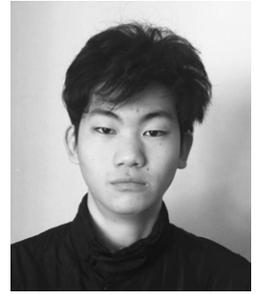


산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영상을 보았는데 많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좋아질 수도 있다. 북한은 자원이 많아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특히 통일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유리하다. 군대를 2년 동안 안 가도 되고 본인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북한 시민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퍼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또한 핵폭탄은 저희에게 위협을 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다. 북한 시민들과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부딪칠 수 있다. 두 나라가 통일 후의 적응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단점 보다 장점이 더 있다. 저는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산가족이 있는데 만나고 싶고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저희에게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시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습니다. 자유도 생기고 다른 것들도 많이 배울 것이다. 빨리 평화를 얻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의 꿈

최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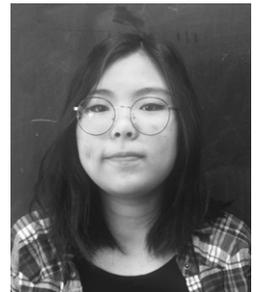
내 꿈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꿈을 내가 원하지 않는지 알아요. 나는 사무실에서 지루한 직업을 원하지 않는 데요. 나는 사업가로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확실하지 않아요.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내 일이 더 중요해요. 나는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꿈

한희원

저는 어른이 돼서 상담심리사가 되고 싶어요. 친구들 때문에 상담심리사가 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마음의 이야기를



해 주곤 하는데 그때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친구니까. 그래서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고 어른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지요. 저 또한 카운슬러랑 얘기하고 문제가 좀 해결되었어요. 친구들도 알고 걱정해 줬지요. 사실 카운슬러한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긴장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나를 혼자 놔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걱정됐으니까 그런 거겠지요. 친구들과 카운슬러랑 부모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덜해졌어요. 이런 치유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므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담심리사가 되고 싶어요.



하늘반

교사 최수나

올해 하늘 반 교실은 예년에 비해 따뜻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대학생 활을 앞두고 있기에 하늘 반 학생들은 항상 바쁘게 지냅니다. 그런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말에 세종학교에 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한 한국학교이기에 의무적으로 와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주는 못 와도 열심히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펴놓고 탄 생각을 하다가도 평소에 관심 있던 내용이 나오거나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나오면 질문을 하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주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학생들이 대견하고 가끔씩 보이는 영특함과 지적 호기심에 놀랍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실용적 내용이나 표현, 역사 문화 이야기들도 같이 나눕니다.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를 배우기 위해 세종학교에 오지만, 제가 보기에 는 그들끼리의 유대감도 큰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세종학교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같이 시간을 보낸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챙겨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중에 미국 학교에서 못 느끼고 경험하는 무언가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 이겠지요. 올해 하늘 반 학생들은 출석률도 꾸준히 높았고 학생들 개개인이 스스로 개성도 있고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챙길 줄 아는 멋진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비교적 꾸준한 출석률이 있었기에 수업을 준비하며 진행하기에도 수월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졸업생인 수민이, 태정, 여진이 그리고 남효 모두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학생들입니다. 그동안 세종학교 다니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즐거웠고 고맷습니다. 또 11학년인 민주, 재영이, 진현이, 래아, 서영이도 가장 힘든 주니어 시기를 웃으면서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늘 반 학생들을 계속 응원하며 주말 아침에도 학생들 등하교를 도와주시고 세종 학교 일에도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진현, 박태정, 임재영, 유수민, 김민주

행복하게 사는 삶

세종 대상 김민주

가끔 친구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꿈은 뭐니?” 그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미술가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꿈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주 좋은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저의 꿈은 사소해 보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행복하게 사는 삶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꿈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될 것이라 혼자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죠. 친절한 선생님이 신이 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러나 그 꿈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일 년 후에 두 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민주야~ 너는 가수가 되자!’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주 방송했던 ‘나는 가수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가수들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의 초등학교 시절은 음악과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또 변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일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미시간에서 봤던 건물들이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도쿄를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꿈이 또 생겨났습니다. 바로 건축이란 것들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특별하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제가 살면서 꿈꾸어 왔던 직업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직업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한 길들이 저의 행복을 흔들리게 할까 봐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꿈은 계속 변해 왔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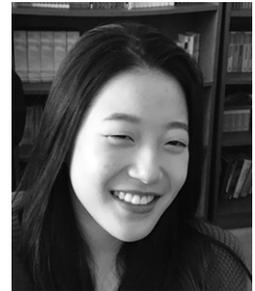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11학년인 저는 또 꿈이 생겼습니다. 이 꿈은 어릴 때 꾸었던 것들과 달리 평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도시에 있는 아담한 집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일 웃으며 사는 미래를 꿈꾸어봅니다. 제가 요즘 알게 된 또 다른 것은 행복은 누가 선물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목표로 살 것이고 아마 지금도 제 꿈을 이루는 중일 것입니다.

내 열정을 스스로 찾는 소중함

하늘상 유수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는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잘 따르면 되는 줄 알았다. 의사, 간호사, 수의사...와 같은 직업들은 모두 좋은 직업들이고 그 직업들은 돈이나 명예도 얻을 수 있기에 내 삶을 위한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나의 꿈’에 대한 글을 쓰면서, 매해 고민을 해 가면서 이런 꿈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6학년 때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썼고, 7학년 때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썼다. 8학년 때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예전에 썼던 글을 참고해서 그대로 쓰고, 그다음부터는 내 꿈이 얼마나 많고 작지만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지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내 꿈이 어떠한지 어떻게 스스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았다. 또 꿈이 어떻게 실제로 꿈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과정도 생각해보았다. 예전에는 어른들의 말씀대로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었다.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의 꿈은 의사나 간호사나 수의사가 아니었다. 나의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꿈이 무엇이 되었든 남에게 비추어지는 모습보다는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고 싶다. 왜냐하면 모든 꿈들은 각 개인에게 의미하는 게 다르고 내가 점점 커지면서 나도 생각이 커지고 더 자유롭게 크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안정적인 삶을 조언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씀들도 물론 염두에 둘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랑 나의 열정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갈 것이다.

"Carpediem!"

아름다운상 박태정



나의 꿈은 사회에서의 내 입지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매일 나는 일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였다. 나는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이고, 성인으로서 경험이 거의 없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잘 모른다. 나는 종종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왔다. 그러나 요즘 나의 목표는 존경받는 대학에 가서 졸업하여 나의 열정을 찾는 것이다. 내 꿈은 아직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꿈을 이뤄가면서 또 다른 구체적인 꿈과 열정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끔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Carpe diem!" 이 말은 오늘을 위해 즐기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미래로 이끌기를 바라며 내가 믿는 말이다. 그 미래를 찾아가는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못 찾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미 꿈을 갖고 말하지만, 내가 오늘

을 즐기고 살아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꿈을 찾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소중한 것이다. 올해 나는 세종학교와 고등학교의 마지막 해로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것은 또한 내가 홀로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이 길을 걸을 때, 나의 열정이 나를 위대한 곳으로 이끌기를 바란다. "Carpe diem!" 나는 오늘을 즐기며 열정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 것이다.

나에게 차가 필요한 이유

이진현

나는 요즘 '내가 차를 가지면 얼마나 좋고 편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운전을 시작한 후 이제 나 혼자 운전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고 자신이 있다. 내 차가 있으면 엄마, 아빠 차를 빌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나 필요한 곳에 빨리 마음대로 갈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을 빨리 사러 갈 수도 있고 가끔 친구들과라도 만나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가끔 수영 연습을 더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언제든 다녀올 수 있어서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차의 상태도 알고 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내 차를 가지는 것은 아직 반대를 하신다. 그 이유는 나에게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다. 내가 아직 어리기에 차를 가지고 운전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신다. 또한 내가 차를 갖게 되면 보험 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것이다. 나는 부모님이 하시는 걱정들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모님의 걱정을 털어드리며 설득하고 싶다. 나는 엄마, 아빠께 나를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운전을 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다. 속도를 지킬 것이며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더욱 침착하게 운전할 것이다. 또한 부모님과 시간 약속을 잘 지킬 것이다. 내 차가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약속한 시간에는 정확히 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차로 운전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학교에 갈 때도 나는 동생들도 라이드를 해주면서 학교에 갈 것이다. 그러면 엄마는 늦잠도 주무실 수 있고 아침 시간이 여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동생들의 수영이나 테니스 레슨 라이드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도 훨씬 편하실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께 나에게 차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다. 나는 너무나 차가 갖고 싶다. 그러나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한다. 내가 더 침착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부모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임재영

나는 어렸을 때 독서를 좋아해서 도서관 사서나 작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미래는 어둡고 흐려 보였다. 나는 나중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지 결정할 수 없었다.



좋은 직업과 좋은 미래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의 우유부단함을 부채질하였다. 사람들을 도와서 행복하지만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을 가져도 될까? 아니면 나를 위한 안정된 직장을 구해야 할까?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성취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내 안에서 쌓이기도 하였다. 나는 때때로 이렇게 내 미

래에 대해 걱정하였다. 왜냐하면 지금 내 선택은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옳은 선택을 확실히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선택한 것은 나의 인생 동안 계속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직업은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전해줌으로써 사람들을 돕는다. 수리공은 고장 난 물건들을 고쳐서 사람들을 돕는다.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직업은 어떤 것이라도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드디어 내 고민의 문제를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어떤 직업이든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고, 그것이 한 사람으로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했다. 나는 일 자리를 얻음으로써 내가 성취될 수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만이 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꿈은 내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 소망도 유지하는 것이다.

나의 성장과 함께한 세종학교



정여진

매주 토요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면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알람 스위치 끄기를 수차례 반복해야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각도 참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결석도 많이 하며 다닌 세종 학교. 그런 세종학교가 어느덧 익숙해져서 이제는 편안한 곳으로 되었는데, 어느덧 떠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왜 그렇게 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며 다녔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웃음만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와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다니다가 하나 둘 나타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해보고 ‘친구들처럼 그만 다닐까?’라는 생각도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종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 년을 매주 다니다 보니 미국 학교만 다녔으면 알지 못했던 한국어, 한국 역사, 문화, 전통, 악기, 춤 등 다양한 경험을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세종학교를 통해서 배운 짧은 언어와 사자성어, 기본에 가까운 역사 상식만으로도 한국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매일 저녁식사를 할 때 한국 방송을 같이 시청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종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지금처럼 한국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 전부터 학교 친구들이 K-POP과 K-DRAMA에 대해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 하면서 저에게도 가끔 묻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노래도 많이 따라 하고 춤도 따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캡션 기능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요즘 부쩍 세종학교에 꾸준히 다닌 것도 참 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숙제도 잘못해 가고 시험도 잘못 보고했지만 세종학교 선생님들은 어린 제 마음을 다 이해해주셔서 늘 괜찮다고 이끌어주셨습니다. 또 항상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종학교 후배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와 같이 고민하고 방향하는 시간이 있을 테지만 세종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따르다 보면 곧 졸업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고 또 저처럼 후회하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지금은 “왜?”라고 의문이 들겠지만 그 의문을 잠시 뒤로 미루고 꾸준히 나아가고 즐긴다면 내일의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가 커나가는데 함께했던 세종학교에 감사하며 영원한 발전을 바랍니다.

세종학교에서 봉사하는 이유



한지윤

저는 10학년 때부터 세종학교에서 봉사를 해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종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봉사시간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계속 봉사를 한 이유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도우며 느낀 뿌듯함과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낯설고 어려웠지만 선생님들의 도움과 봉사를 하는 다른 학생들과의 친절함 덕분에 매주 세종학교에 갈 때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세종학교 친구들이 저의 작은 도움으로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였습니다. 특히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도 한글에 대한 욕심과 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귀엽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힘을 입어 더욱더 제가 잘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제가 비록 봉사를 시작하게 된 처음의 이유는 오직 봉사시간을 받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유는 제가 도와주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한글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봉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오게 된 친구들이나 주변 아이들 중에서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 한국어를 할 수 있고 부모님과 깊은 대화도 가능하다는 점이 저의 큰 장점이기도 하여 이것이 세종학교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느꼈기에 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종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저 같은 친구들이 세종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반

교사 엄선규

미시간 겨울의 칼바람은 아니지만 4월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벌써 이번 2018-2019학년 수업 마무리로 세종 문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신입반은 어른들과 5-6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로 수업 집중도와 관심사가 다르지만, 서로 협조하면서 나아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술제 작품으로 참여할 연극 ‘양치기 소년과 늑대’ 연습으로 서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업을 잘 따라오는 모범생인 가이, 수업 조교 역할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수산나, 푹푹하고 마음이 따뜻한 동우, 배우고 습득하는데 열정이 많은 다니엘, 수업할 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주는 지원이, 반 학생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지민이, 그림을 잘 그리는 하나가 저희 신입반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앞날에 발전과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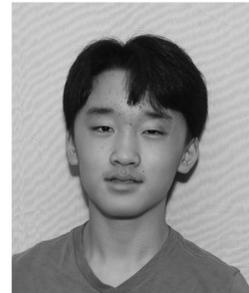
신지원, 신지민, 서동우, 다니엘, 가이 (수산나, 하나)

나는 가이입니다. 보통 다섯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아홉시에 아침을 먹고, 인터넷 봅니다.
 열시에 샤워합니다. 열시반에 직장에 갑니다.
 일곱시에 집에옵니다. 일곱시반에 저녁식사를 합니다.
 여덟시반에 샤워 합니다. 열시에 잤니다.



가이

나는 학교가요. ~~7:25-7:45~~
 7:45AM ~ PM
 나는 필에 와요. 3:00PM
 나는 스넥을 먹어요. 3:30PM
 나는 테니스가요. 4:15PM
 나는 저녁밥 먹어요. 7:00PM
 나는 공부해요. 8:30PM
 나는 잠을 자요 10:00PM



서동우

하루 생활

나는 여덟시십오분에 일어납니다.
 여덟시사십분에 귀찮아러 갑니다. 걱정까지 걸어 갑니다.
 걱정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동료하고 고객을 만납니다.
 나는 매일 바쁩니다. 그래서 점심을 안 먹습니다.
 많은 사람과 전화합니다.
 다섯시 삼십분에 걱정을 마칩니다.
 NYC에 일곱시에 극장에 갑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집에 일곱시부터 아홉시까지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홉시반에 체육관을 가고 운동합니다.
 열일시에 샤워합니다. 샤워를 따뜻하게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시 반에 잠을 갑니다.



수산나

케이팝과 한국어

수산나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세종 학교에 새로 다니는 학생입니다. 스물 아홉살이기 때문에 학교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천육 년부터 한국어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딸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같이 한국어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아, 에픽하이, 동방신기, 원더걸스하고 샤이니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더걸스가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원더걸스를 만났습니다. 정말 예뻐습니다. 원더걸스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샤이니예요. 특히 샤이니의 키예요. 저는 또한 한국 만화를 읽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드라마 도 봤습니다. 첫 드라마가 폴하우스였습니다. 드라마에서 궁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이천십 년에 이화 여자 대학교에서 여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하고 인류학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안동 하회마을에 가 보았습니다. 삼신당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천십삼 년에 대학원을 졸업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컨설턴트입니다. 출장으로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적어도 한달에 세번 뉴욕 또는 플로리다에 갑니다. 육년 동안 열심히 많이 일했습니다. 재미있지만, 아주 어려웠습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종학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한국으로 놀러 갑니다. 서울, 대구, 부산 하고 제주에 갑니다. 동방신기의 김준수 뮤지컬을 볼 예정입니다. 이미 티켓을 샀습니다. 저는 아주 흥분됩니다. 지금 다시 한국어 공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색동반

교사 오승용

타주에서 미시건으로 이사를 오고 우연히 신문에서 세종학교 기사를 보고 아이들을 보내려고 한 것이 2018-2019년 색동반 교사로 섬기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8년 여름 교사 연수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1학기에만 함께 했던 Olivia와 Talbot, 가장 성실하게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시원이, 다른 활동으로 오전에 빠지게 되더라도 한글 수업을 위해 오후에는 가능한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Kellen, 2학년 매화반에서 수업을 듣다가 2학년 수업이 너무 어려워 기초부터 시작하는 지수, 4학년 무궁화반에서 또래의 친구들과 활동을 하고, 4교시 한글 수업을 들으러 오는 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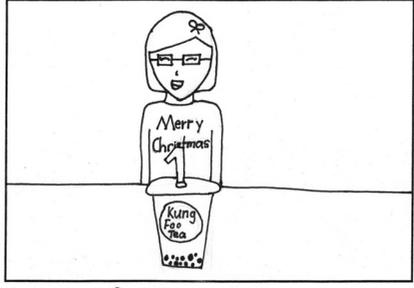
제 삶에 있어서 2018-2019년 색동 반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색동반 친구들이 오늘의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어인 한글을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색동반 친구들이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수고해주신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색동반 이름: 오지수



저는 겨울 방학에 아틀란타에 갔
어요. 보바마셨어요 나는 보바를 좋아하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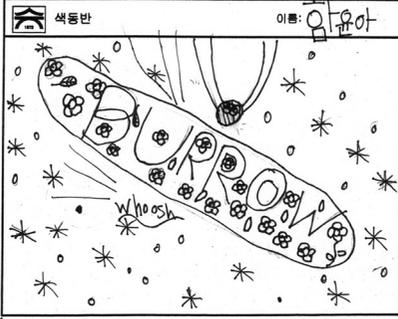


색동반 이름: 이시윤



성탄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선물을 봤다. 부모님을 깨워서 모든
선물을 다 열었다. 정말 즐거운
성탄절이었다.

색동반 이름: 김윤아



학교에서 왁스 뮤지엄을
 왔습니다. 저는 2018 올림픽
 에서 금메달을 단
 클로이 김으로 분장 하였
 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색동반 이름: kedenr



플로리다에 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들이
 있었어요.



종달새반

교사 이재선

한국인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종달새반 모든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 년 동안 끝까지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신 브라이언 씨와 아쉽지만 1학기만 다니신 Ian 씨와 Chanda 씨

모두들 지금의 열정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세종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

Brian Kirby

부모님,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것에 바로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고, 모두가 아는 좋은 회사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우연히 바둑을 접한 뒤, 바둑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0급, 3급, 그리고 꽤 높은 3단까지 이루어 냈죠.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가 제가 많이 존경하는 이세돌 9단과 바둑 경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디어에서 이세돌 9단 대 알파고의 경기가 세기의 대국이라는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둑은 복합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프로 바둑 기사가 컴퓨터를 상대로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세돌 9단이라면 더욱더요. 2016년 3월 9일 저는 둘 사이의 첫 대국을 늦은 시간까지 생방송으로 봤는데... 이세돌 9단이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바둑을 잘한다면 내가 바둑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열심히 바둑 공부를 해도 컴퓨터가 인간보다 바둑을 더 잘 하고 더 좋은 수를 둘 텐데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언젠가는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 인생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적인 인생이라고 배워왔던 것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순간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 느끼는 시원한 공기... 인간이니까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경험입니다. 우리 집 꼬맹이들과 밖에서 같이 놀 때의 좋은 기분... 인간의 경험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인간의 경험입니다. 컴퓨터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인간만의, 나만의 경험입니다.

기술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인간보다 잘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작은 느낌과 경험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세종학교에 첫발을 내디뎠던 2017년 4월 말 그 토요일이 얼마 안 된 일인듯 싶는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4학년 귀여움을 벗지 못했던 그때의 아이들은 탄에이저의 모습으로 쑥 커 버렸고, 엄마 아빠와 쉽게 떨어지지도 못하는 아기 같은 모습이 남아 있던 토끼반 친구들이 벌써 개나리반 언니, 형 아들로 커 버려 마냥 대견하고 신기한 마음입니다.

미시건으로 다시 돌아온 후, 가장 잘한 일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세종학교의 가족으로 함께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교과를 맡게 되어 더 행운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로운 노래를 푹푹한 눈으로 열심히 배우며, 혹 지나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반가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해주는 한없이 귀여운 토끼반, 나비반, 개나리반 친구들...

4시간 수업 중 유독 더 학교의 생기를 느끼게 해주는 우리 매화, 난초반 친구들...

올해부터 남학생들까지 합류하여 더욱 활기차게 리코더 수업을 함께해 온 무궁화반, 장미반 친구들... 함께 동요대회를 준비하며, 또 대회에서도 무척이나 열심히었던 예쁜 아이들의 모습이 기특하고 예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좌충우돌하던 때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만큼 세종학교가 더 자리 잡고 자랐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세종학교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속해있는 모두의 기억 속에 예쁘게, 감사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 함께해나갈,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시간들을 기대해봅니다.





Grades K-1

The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students have been learning the Sogo Dance. The accompanying song is the well-known children's song, "Dal, Dal, Musen Dal." Students practiced playing the sogo drum and performing the rhythmic movements. The Sogo Drum Dance and the music will remind the audience of the full moon rising above the tall mountains in Korea.

Grades 2-3

This year, the 2nd and 3rd grade students choreographed their own dance steps and movements. They also chose the buchaechum music. The students worked diligently each week to synchronize their steps and to develop graceful movements. The audience will be reminded of the beautiful trees, butterflies and flowers blooming in springtime.





사물놀이

교사 Torey Powers





태권도

보조교사 정상운



미술실로 오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에는 기대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준비한 수업 내용을 한가득 넘어서는 아이들의 그림은 그 기대로 풀어낸 즐거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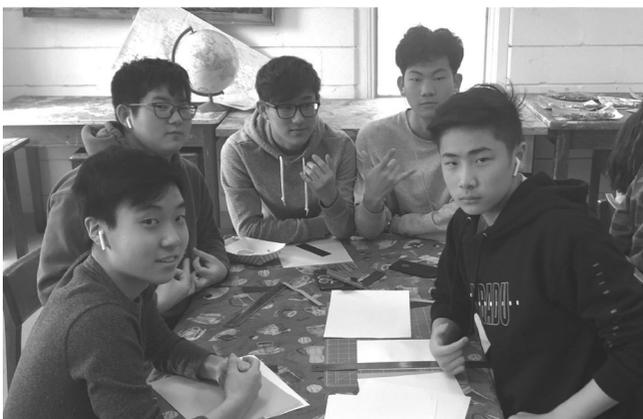
바쁜 학교생활과 대입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하늘반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쉬어갈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지만 끝까지 마무리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하늘반 친구들의 열정에 감사를 보냅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다른 개성을 가진 토끼반. 여물지 않은 손끝으로 어찌나 예쁜 그림을 그려내는지요. 매시간 즐거운 토끼반에는 18명의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번 수업이 너무 아쉬워서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언제 미술수업 또 하느냐고 물어보는 아이들... 더 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 즐겁고, 의미 있는 미술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세종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세종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종 Newsletter Club

회장 정여진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Newsletter Club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여진입니다. 세종 Newsletter Club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세종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과 세종학교 클럽 소개, 한국 뉴스, 전통음식과 명절 소개, 한국 영화 소개 및 선생님들의 인터뷰 등 다양한 소식들을 학생기자단의 글 솜씨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과 후 모임이 있으며, 편집회의를 통해 주제 및 담당 기자 선정 등을 의논합니다. 현재 세종 Newsletter Club에는 총 10명의 기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여진, 김래아, 김민주, 손유진, 이연우, 정혜린, 김도희, 김결, 한수혁, 정찬민)

세종 Newsletter Club은 달반에서 하늘반까지 세종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종 Newsletter Club의 기자가 되어 평소애 관심 있던 주제와 소식을 기사로 만들고, 매 학기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 여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종 Newsletter Club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Rise

회장 김래아



K-Rise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K-Pop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노래와 춤을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클럽입니다.

2011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벌써 8년이 다 되어가는 K-Rise는 한국 학교의 날, 세종 예술제 등의 공연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여러 친구들과 지역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7학년부턴 중,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저희 클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토요일 세종학교 방과 후인 1:30-2:30에 모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Rise is a club celebrating Korean culture, mainly centered on K-Pop. K-pop is currently trending all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singing, dancing, and eye-catching visuals. Since 2011, K-Rise has been helping spread modern Korean culture to many diverse groups and local communities.

For almost 8 years, K-Rise has performed dances at festivals and the SaejongYaesuljae.

Anyone from seventh grade to high school can join, and the meetings are on Saturdays after Saejong School from 1:30-2:30pm.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We look forward to another great year with new members!



친구클럽

회장 김남효

My name is Claire Kim and this past year I served as the president for Saejong's Chingu Club. Volunteering in Chingu Club has given me a huge sense of fulfillment over the last five years, and this year as president it has felt especially so. Chingu club has allowed me to give back to the children of the school in which I have grown up and learned of my Korean heritage. One thing I love about this club is that both the tutors and the kids get something out of it- the kids get to learn/get their homework done while the tutors can get volunteer hours and talk to their friends. I love that the families of members and students alike are a very close-knit group, and that everyone participating is able to meet new people to grow closer to while giving back to the Saejong community. I'm proud to announce that there were many new tutors to join this year, and hope that this club only continues to grow in the coming years.

지난 5년간의 친구 클럽 활동은 제게 아주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클럽의 회장을 맡아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클럽은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성장한 세종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친구클럽에서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가르치는 봉사 학생과 배우는 어린 친구들 모두가 그 안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봉사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봉사시간도 얻을 수 있고, 어린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숙제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클럽에 나오는 봉사 학생과 어린 친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며 새로 오는 사람들과도 금방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도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새로운 봉사 학생들이 함께 하게 되어 회장으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친구클럽이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친구클럽 소개

친구클럽에서는 세종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어린 친구들과 한국어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종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 주기도 합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책을 같이 읽기도 합니다. 세종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나뉘어져 공부를 하지만 친구클럽에서는 학년에 상관 없이 모두 함께 한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언니, 오빠, 누나, 형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tutoring 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친구클럽은 세종학교가 있는 매주 금요일 5시~6시 까지 Bloomfield Hills Public Library(1099 Lone Pine Rd, Bloomfield Hills, MI 48302) 에서 만납니다. 친구 클럽에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23회 세종 동요대회

대상 오지수 (색동반)
 금상 박재연 (난초반), 박송지 (나비반)
 은상 김성원 (난초반), 이준우 (매화반), 김이준 (개나리반), 양지훈 (개나리반)
 동상 주예성 (난초반), 한민혁, 한이든 (매화반), 김주아, 김혜나, 박윤서 (개나리반)

장려상

오수지, 이장윤 (난초반)
 강예준, 조은유 (매화반)
 안소현, 이민준, 손하준 (개나리반)
 금민재, 김영제, 이지우 (나비반)
 켈런티리 (색동반)



노력상

김이안, 박지오, 안현진, 조민현, 조병현 (난초반)
 강건우, 금민준, 민지홍, 박나연, 박다연, 심유빈, 이동기, 이두혁, 이주현, 전여진 (매화반)
 김린, 김유진, 서동주, 정태호, 준우커비, 한예린 (개나리반)
 구유진, 박리오, 오은수, 오헬렌, 윤혜린, 이라나, 이진, 이채원, 이효경, 전래오, 조은기, 한지오 (나비반)
 강재준, 김다나, 박지호, 박채원, 안서연, 오소망, 이다은, 준수커비, 한유주, 한이삭 (토끼반)



제27회 세종 글짓기 대회

세종 대상: 김민주 (하늘반)

4학년 무궁화반: 윤채린(무궁화상), 박연서(아름다운상), 오지효(고운상), 이주찬(예쁜상)

5학년 장미반: 윤수은(장미상), 박채린(아름다운상), 최서진(고운상), 하준형(예쁜상)

6학년 해반: 이상엽(해상), 김찬영(아름다운상), 김예원(고운상), 윤지환(예쁜상)

7학년 솔반: 표진선(솔상), 오세빈(아름다운상), 정다명(고운상)

8학년 달반: 강솔푸른(달상), 정혜린(달상), 김도희(고운상), 김결(예쁜상)

9-10학년 별반: 이예원(별상), 심진희(아름다운상), 정다운(고운상), 이지민(예쁜상)

11-12학년 하늘반: 유수민(하늘상), 박태정(아름다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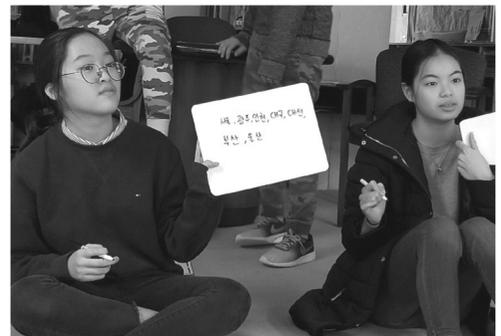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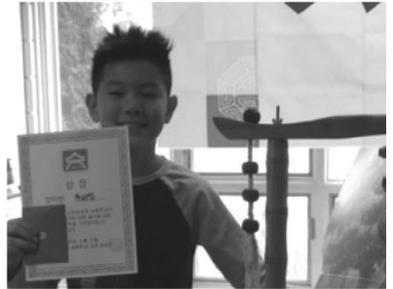




도전! 골든벨을 올려라

제13회 세종 골든벨 우승자

난초반: 박재연 / 무궁화반: 민건홍 / 장미반: 최서진 / 해반: 한준혁
솔반: 배은서 / 달반: 김도희 / 별반: 이지민 / 하늘반: 임재영



2019년 세종 이야기 대회

대상 박재연 (난초반)

유치부

1등 김이준(개나리반)

2등 이진(나비반), 손하준(개나리반)

3등 오은수(나비반), 최서진(나비반), 박다연(매화반)

참가상

토끼반: 김다나, 박지호, 박채원, 오소망, 이다은, 한이삭

나비반: 김영제

개나리반: 박윤서, 안소현

매화반: 한민혁, 한이든

초등부

1등 김이안(난초반)

2등 서유빈(무궁화반), 오지효(무궁화반)

3등 안현진(난초반), 이장윤(난초반)

참가상

장미반: 최서진, 하준형

중고등부

1등 윤지윤(별반)

특별반

특별상 이시원(색동반), 수산나(신입반), Brian Kirby(종달새반)



설날행사



2017-2018년 졸업식 및 세종장터



2017-2018년 세종 예술제



2017-2018년 세종 예술제



